



1천일 동안 기도로 달려온 성도들이 지난 7월 7일 일천번제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은혜한인교회

1천일 동안 기도하며 놀라운 응답 받아

은혜한인교회 일천번제 기도회 드려

은혜한인교회가 2015년 10월 12일부터 시작한 1천일 동안의 예배 '일천번제'를 2018년 7월 7일 끝냈다. 구약에서 솔로몬 왕이 1천 마리의 제물을 잡아 번제를 드린 것을 가리키는 일천번제를 본따 은혜한인교회는 1천일 동안 매일 예배 드리며 기도회를 연 것이다. 그리고 1천일의 마지막 40일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자"는 주제의 특별 기도회로 드렸다.

교회 측은 "이미 960일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을 체험한 성도들이 마지막 40일 동안 첫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열정이 불일듯 일어나며 오직 주님의 열굴만 구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었다"고 간증했다.

일천번제 마무리 기도회는 7월 7일 저녁 8시에 본당에서 열렸다. 장로함창단이 '주는 나의 피난처'란 곡으로 특송하고 모든 성도들은 그 동안의 기도와 예배를 받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찬송과 경배를 올려 드렸다. 한기홍 담임목사는 예레미야 3장 15절 말씀을 통해 "굽은 마음, 병든 몸, 빛나간 삶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설교했다.

한편, 이번 기간 동안 성도들은 각종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가정이 회복되며, 직장 사업이 잘 되는 기도 응답을 받는 등 간증이 넘치고 있다.

안의 기도와 예배를 받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찬송과 경배를 올려 드렸다. 한기홍 담임목사는 예레미야 3장 15절 말씀을 통해 "굽은 마음, 병든 몸, 빛나간 삶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설교했다.

연방대법 판사 후보에 캐버너 지명 보수 성향에 낙태 합법화 뒤집힐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임 연방대법원 판사 후보로 브렛 캐버너(Brett Kavanaugh)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다. 지난 9일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말 사임을 앞두고 있는 앤서니 케네디 연방대법원 판사의 후임자로 캐버너 판사를 지명한다고 발표했다.

캐버너 판사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지명한 인물인 닐 고서치 판사의 사무원으로 일한 바 있는 인물로 보수 성향이다.

캐버너 판사는 예일대와 동 대학 로스쿨을 졸업하고 조지 부시 대통령 당시 백악관에서 근무했다. 워싱턴 D.C.에서 자라난 그는 가톨릭 교인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캐버너 판사에 대해 "판사 중의 판사이며 훌륭한 법학자"라고 평가했다.

낙태 불허의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캐버너 판사가 임명될 경우 낙태 합법화를 허용했던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를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보수 진영은 트럼프 행정부가 낙태를 불허하는 방향으로 바꾸길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낙태를 불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연방대법원 판사 두 세 명만 생명옹호론자로 바뀐다면 기존 판례를 뒤집을 수 있다"고 했다.



브렛 캐버너 후보자

신학은 목사만? 평신도도 알아야 미주장로회신학대 평신도 대학 시작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가 평신도 대학을 시작한다. 미주장신대는 오는 9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총 11주간 동안 이 과정을 연다.

한 학기 등록에 200달러이며, 한 과목만 수강할 시 30달러다. 학교 홈페이지(www.ptsa.edu)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오는 8월 17일까지 등록이 가능하다. 7월 31일까지 접수하면 20달러가 할인된다.

이번 학기에 개설되는 강의는 평신도를 위한 신학 왜 필요한가(이상명 총장), 성경 이야기를 읽을 때 나는 누구인가(김수정 교수), 바울 신학과 선교적 교회(이상명 총장), 루터의 이신칭의 돌아보기(송인서 교수), 개신교가 한국 근대화에 끼친 영향(김인수 교수), 일상과 신학(박

동식 교수), 고독과 안식(최캐런 교수), 이만자의 심리 이해(김용환 교수), 기독교 세계관과 선교(구경모 교수) 등 성경, 기독교 역사, 교리, 상담, 선교 등 다양한 영역을 다룬다. 또 이번 학기 중에는 과학 묵상(박창현 목사), 우리는 왜 이슬람을 혐오하는가(김동문 선교사) 등 두 차례의 기독교 인문학 포럼도 포함된다. 이 평신도 대학은 미주장신대 교회신학연구소가 주최하며 박동식 교수(213-703-9856, dspark@ptsa.edu)에게 문의하면 된다.

이 과정의 두 번째 학기는 내년 2월 7일부터 4월 25일까지 개설될 예정으로 오는 9월 열리는 첫 학기와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 밀착된 신학 강좌와 기독교 인문학 포럼으로 구성된다.

제15회 휠체어 사랑이야기 콘서트 열린다

살롱장애인선교회가 오는 7월 15일(주일) 저녁 7시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콘서트 "제15회 휠체어 사랑이야기"를 개최한다. 휠체어 사랑이야기는 매년 600명 이상의 장애인들과 후원자들이 참석해 전 세계 장애인 선교에 뜻을 모으는 연례 행사다.

연세대 성악과를 졸업하고 뉴욕 맨해튼 음대에서 장학생으로 석사 과정을 마친 후 샌프란시스코 오

페라 애들러 펠로우쉽을 졸업한 바리톤 강주원 씨가 출연하며 KAM Chorale, 남가주농아교회수어찬양팀, SDM 찬양팀, 그리고 휠체어 단천사 배주은(14세) 양이 함께 하여 남가주 최고 수준의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살롱장애인선교회는 이 콘서트를 통해서 마련된 기금으로 아프리카 토고 등 지구촌의 불우한 장애인 3,000명 이상을 도울 휠체어와

기타 의료보조기구들을 배로 보낸다. 이 '제40차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프로젝트는 오는 9월 중 실시될 예정이다.

살롱장애인선교회는 지난 19년 동안 39차에 걸쳐 실시해 온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프로젝트를 통해 휠체어 11,703대, 기타 의료보조기구 49,077점을 선적해 13개국 60,780명의 지구촌 장애인들을 도왔다.

**미용자격증
미용고급기술**
 김인태
 한국국가대표 아시아 챔피언 출신 강사 직강
QCA Beauty College
 T.213-232-3837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ASE CERTIFIED 시온 Auto Tech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전기계통
 ■ Tune-Ups ■ 10K Service
 ■ Computer Diagnostic ■ A/C Service

*월~금 : 8AM~6PM, 토 8AM~4PM *320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 735-3180

축!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ATS (북미 신학대학원협의회)
정회원 자격 취득
ATS

- 2018년 6월 21일, 콜로라도 덴버에서 개최된 ATS Biennial Meeting에서 승인
- 270여 ATS 회원학교들과 학생 및 학점 교류 가능
- 디아스포라 지역에서 사역할 다음 세대의 영적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국제적인 신학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 마련

2018년 신/편입생 모집

모집과정
 신학사 (B.Th), 교역학석사 (M.Div), 크리스천상담심리학석사 (M.A.C.C.P.), 선교학 철학박사 (Ph.D. in Contextual Studies), ESL
 ※ 학사 및 모든 석사 과정은 100% 원격교육으로 오프라인 과정과 동일하게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주권, 시민권 소지 B.Th 학생들은 연방정부 교육국으로부터 학자금 보조 (Title IV) 가능.
 (보조는 자격 요건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으며 졸업 후 상환하지 않음)

일정안내
 오프라인 개강일 : 2018년 8월 27일 (월) | ESL 개강일 : 2018년 9월 3일 (월)
 온라인 개강일 : 2018년 8월 27일 (월)

CSAAVE
 미주장신은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에서 승인을 받아 재향군인들에게 장학금과 그 외의 혜택 지급이 가능한 학교가 되었습니다. 담당자가 신청을 도와드릴 수 있으오니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Sunny Kim (Certifying Official)
 T. 562-926-1023 (ext.302) www.ptsa.edu
 Email : fsa@ptsa.edu

정회원 ats 정회원 유학생을 위한 (-20)도 발행합니다.

입학문의
 • 사무실 - (562)926-1023 ext.300, office@ptsa.edu
 • 박사원 디렉터 - 피터 강 박사 (818)400-4976

한인기독교상담소 칼럼

분노, 하나님의 기록하신 속성

1893년 인도 출신의 젊은 변호사가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리토리아를 방문하게 된다. 그는 일등석 기차표를 샀지만, 역무원이 다가와 일등석에서 강제로 끌어내 화물칸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다. 그 이유는 '인도인은 일등석에 앉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당시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욕을 당했고, 그는 그때부터 마음속에 분노를 품게 되었다. 그가 바로 인도의 영웅 간디이다. 그가 인도를 영국으로부터 독립시킬 수 있었던 힘은 바로 '분노'였다. 이처럼 부정의와 불의에 대해 분노로 반응하는 것은 시대의 잘못된 풍조에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즉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건설적인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장 지 은 상담원
한인기독교상담소

하는가의 문제인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분노를 파멸이 아닌 긍정적인 결과로 이끌 수 있을까?

먼저, 분노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분노는 죄로써 억압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의 기본적 속성 중 하나임을 인식하고, 자신이 분노를 느끼는 것을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노는 필요한 것이다. 영혼을 충족시키고 용기를 북돋우기 때문에 분노가 없으면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적절한 분노의 표출은 실제로 표적의 대상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되고,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자기 분발의 계기가 된다. 따라서 불합리한 상황을 건설적으로 바꾸는 에너지로서 분노의 기능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분노의 원인을 살펴봐야 한다. 흔히 분노를 모두 표출해내는 것이 분노를 순화시켜준다고 알고 있지만, 오히려 분노를 강하게 표출할수록 분노에 동반되는 생리적 활동이 활발해지며 분노나 공격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분노를 그대로 표출해내기보다 분노의 원인을 밝혀 건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노에도 도덕성 상실로 인해 생긴 정당한 분노와 도덕성과 상관없이 상황을 왜곡해서 생긴 왜곡된 분노가 있다. 누구에게 화가 난 것인지, 무슨 잘못이 있는지, 모든 사실을 확실하게 아는지, 문제의 심각성 정도에 대해 생각해 보면 자신의 분노가 정당한 것인지 왜곡된 것인지 알 수 있다. 정당한 것이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만약 왜곡된 것이라면 이를 인식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해를 구하며, 변화를 요청할 때, 긍정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노를 처리하는 긍정적인 반응을 모색해야 한다. 이 분노에 긍정적인 부분이 무엇이며,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 행동이 사랑을 바탕으로 행해지는 것인지, 나와 상대방에게 유익한 것인지 등을 모색하는 것이다. 가장 좋은 반응은 분노를 사랑으로 대면해 관계가 회복되고 화해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용서가 따른다. 이때 용서는 희생을 바탕으로 타인에 대한 분노를 제거하는 것이며, 의지적인 행동이 동반된다. 물론 이러한 시도가 최선의 반응이지만, 항상 화해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노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성숙하게 처리하려는 과정을 통해서 얻는 긍정적인 결과가 있다. 만약 상대방과 대면해서 바로 잡아야 할 가치가 없거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그 잘못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식적인 결단과 의지가 필요할 때도 있다. 이럴 경우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감정적, 육체적인 에너지 소진을 막을 수 있으며 오히려 하나님께 분노와 심판을 맡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된다.

에베소서 4장 31-32절에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훼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가? 그 분노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분노를 동기 부여제로 사용해서 하나님께 기록하심을 닦아가며 불합리한 상황을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원하신다. 또한, 분노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누린 자로서, 이를 겸손히 실천하기를 원하신다. 분노라는 감정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성품을 단련하고, 하나님의 기록하심을 좇아 이를 실천할 수 있다면, 분노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며 기록하심을 닦아가는 또 다른 하나의 통로가 될 것이다.

문의) 한인기독교상담소 (kaccla.net) 전화) 213-738-6930 (LA) 657-529-1133 (OC)



이번 목회자 아버지학교를 준비하는 봉사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주님! 제가 목회자 아버지입니다

"모범적인 아버지가 되고 싶으면 나한테 좀 와서 배워가라고 자부했던 제가 아버지학교를 하고 나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김시은 목사(옹기장이교회)는 지난 7월 9일 목회자 아버지학교 개최를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위와 같이 밝혔다. 그뿐 아니라 기자회견에 참석한 목회자들 모두 한 뜻이었다. 이상훈 목사(주비전교회)는 "아버지가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서고, 가정이 바로 서야, 가정들로 구성된 교회도 바로 선다"고 강조했고 서건오 목사(나성서부교회)는 "아버지가 갖고 있는 아픔과 상처를 꺼내어 놓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라 설명했다. 광부환 목사(한마음제자교회)는 "목회자와 아버지로서 정체성이 흔들리거나 위기에 있는 분들에게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2001년 시작돼 올해 제14기를 맞이한 두란노 목회자 아버지학교가 오는 8월 6일(월) 오후, 7

일(화) 하루 종일, 12일(주일) 오후 총 3일간 늘푸른선교교회(안창훈 목사,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에서 열린다. 참가비는 120달러.

한국에서 1995년 시작된 이래 아버지학교는 전세계 69개국 282개 도시로 퍼져나가며 7,039회 진행되었고 수료자만 34만5천 명에 달한다. 미국에서는 2000년 처음 시작돼 현재까지 785회 개설됐고 수료자는 3만1천 명이 넘는다. 일반 아버지학교와 동일한 내용이지만 목회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목회자 아버지학교는 LA에서 처음 시작돼 이제 다른 나라로 퍼져나가고 있는 추세다. LA 목회자 아버지학교는 13회까지 벌써 약 400여 명이 수료한 것으로 집계된다.

이번 아버지학교에서는 광부환, 박세현(예수로교회), 권준(시애틀형제교회), 서건오 목사가 강의할 예정이다. 문의) 714-296-6783



정기 모임 참석자들 기념촬영

기독교한의사협 7월 정기 모임

미주기독교한의사협회(정종오 회장)가 지난 9일 오후 나성소망교회(김재울 목사)에서 30여 명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7월 정기 예배 및 한의사 보수 교육을 실시했다. 문의) 213-500-6393

얼바인중앙교회 이기업 목사 위임예배

얼바인중앙장로교회가 교회 설립 40주년을 맞이해 담임목사 위임 감사예배 및 위임식을 7월 22일(주일) 오후 4시 연다. 교회 주소는 17702 Cowan, Irvine, CA92614이며 전화 번호는 714-329-2481이다.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www.chman.org 714.738.1234
ACCREDITED CHARITY
bbb.org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 신학교 인가(TRAC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제9회

사모블레싱

나잇

To 목회자 사모님들
한해 동안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사모님들의 섬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주님에 대한 사랑때문에 견디신 시간들을 위로해 드리고 격려해 드리고자 작은 감사의 자리를 오렌지카운티 교회 협의회가 마련했습니다. 의미있는 시간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푸짐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꼭 오셔서 이 귀한 시간을 누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2018년 7월 17일(화) 오후 6시 30분
장 소: **미주 비전교회** (이서 목사 시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대 상: 목회자 사모님 선착순 120분
참가신청: 이수경 사모 (714-904-6428), 이소연 사모 (714-234-6929)
행사관련문의: 박재만 목사 (714-952-0191)

이사회(목사) 이사장 민승기, 총무 이호우, 이사 정영수 윤성원 한기홍 양문국 박학선 신원규 박용덕 엄영민 양금호 이봉하 민경엽 김기동
후원이사회(장로) 이사장 김영수, 이사 이지락 이범수 전주홍 이종렬 회장단(목사) 회장 이서, 부회장 조현영 박재만 박용일 이창남 이관우, 총무 이수경, 서기 김찬희, 회계 이소연(사모)

주최 : 오렌지카운티 기독교 교회협의회

세계 선교 위한 대학... 신학적 입장은 오픈 월드미션대 제3대 신임 총장 임성진 박사

월드미션대학교(World Mission University)는 '이 세상의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문화와 국경을 초월하여 기독교 정신을 가진 다양한 분야의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미 서부 대표 종합대학교'를 비전으로 한다. 1989년 故 임동선 목사(동양선교교회)가 설립한 월드미션대는 최근 3대 총장으로 임성진 박사를 선임했다. 월드미션대 1회 졸업생으로 모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던 임성진 신임 총장은 안팎의 급속한 도전과 위기 속에 기독교 정신을 지키고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총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학교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주신다면.

1989년 개교 이래 올해가 29주년 이고, 이번 27회 졸업생까지 총 922 명이 졸업했습니다. 과목은 신학과와 기독교상담학과, 교회음악과가 있고, 학부 수료증부터 준학사, 학사, 석·박사 과정까지 있습니다. 박사는 목회학과 교회음악과가 있습니다. 교회음악 박사 과정은 찬양사역자 양성 프로그램이 있는데, 미국 전체로 봐도 거의 없는 과정입니다. 저희 학교는 ABHE와 ATS 대학원 인가를 받은 대학입니다. ATS 인가 학교 중 찬양사역 전공 박사 과정이 있는 대학은 2-3곳뿐입니다. 무엇보다 세계 선교를 위해 설립된 대학이기 때문에 해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학생들 중에는 중국 한쪽을 비롯해 남미 스페인어권이 있고, 곧 아프리카 말라위에서도 강의 개설됩니다.

-월드미션대만의 특징이 있다면.

목회학 석사(M.Div.) 과정은 보통 목회자 후보생들이 많이 찾습니다. 미국 여러 도시에 흩어진 한인들 중 목회 지망생들이 많은데, 그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CBTE(Competence Based Theological Education)라 불리는 목회 능력 배양 교육은 교수와 현장 지도자 두 부류를 멘토로 합니

다. 이론은 교수진이 가르치고, 실습은 현장 목회자들이 맡습니다.

현장에서 승인해야 접수가 나갈 정도로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수진과 함께 학점을 인정하는 방식도 시작했습니다. 현장 목회자는 자신의 교회에서 설교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론 공부가 제대로 구현되는지 평가합니다. 이는 온라인 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NGO 프로그램은 신학교들이 처한 문제의 해결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역자가 없지만 신학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졸업만 시키고 마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사역자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돌파구로서 NGO 과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권 국가 교육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이미 교육이 시작됐고, 중국과 라틴아메리카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도 협조 요청이 들어와, 포르투갈어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웃음).

-교회음악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지요.

저희 학교 교회음악과 찬양사역자 박사 과정은 탁월합니다. 교회 내에서 음악을 잘 하시는 분들은 보통 신학적 기반이 약합니다. 반대로 신학적 기반이 있는 분들은 음악적 재능이 다소 부족합니다. 이 둘이 조화를 이루지 못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세대의 교회에게는 학문적·신학적으로 훈련된 음악 디렉터나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부분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진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학위가 있는 분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 설외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찬양사역 분야에 사역자들이 많이 필요할텐데, 제대로 교육시키려면 이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탁월한 크리스천 뮤지션들이 많은 LA 뮤직 인스티튜트(MI) 강사들을 모셔왔습니다.

-간호학과 설립을 추진 중이지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기독교 정신을 가진 간호사들을 배출시켜 간접적으로라도 선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교회나 목회자들만이 아닌, 사회공헌 차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교육학과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공립학교의 경우 세속 교육만 시킬 수 있기에, 믿는 자녀들이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진화론자, 교회에서는 창조론자가 되거나, 둘 속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사가 많이 양성되면 학교에서도 작으나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저희는 학위 인가기관에서 실행할 수 있는 자원이 충분한지, 그것이 납득할 만한 정도인지 확인하고 하게 하기 때문에, 철저히 자원을 확보한 뒤 시작할 계획입니다.

-초교과 신학대인 만큼, 신학적인 색깔이 궁금합니다.

동양선교교회가 학교 설립 때 재정을 지원했고 담임이셨던 임동선 목사가님 첫 총장이었습니다. 성경 교이셨지만, 초교과 대학으로 시작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초교과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신학교는 노선에 의해 이름도 정체성도 정해지는데, 초교과라고 하면 다들 이론적으로는 이해하면서도 혼돈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칼빈주의자라면 웨슬리안에 대한 입장 등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학생들에게 '우리는 열려 있다'고 합니다.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장단점을 소개한 뒤, 받아들이는 것은 학생들의 입장이나 배경에 맡깁니다. 우리 학교 입장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는데, 이것이 부차적인 이유는 학교 제일의 목표가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선교연합회라는 기관과 협력해 졸업생들이 대부분 목사안수를 받고 있습니다. 연합회는 동양선교교회에서 세운 교회들과 그 선교 정책에 동의하는 교회들이 연합한 단체입니다. 이곳도 신학을 가진 교단이 아니라, 선교를 위



임성진 신임 총장

한 연합체입니다.

-북한 선교에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NGO 프로그램을 적극 하고자 합니다. 통일이 되거나 북한이 열리면 선교하러 가고자 하는 목회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이 목회학만 공부한 상태입니다. 신학만 들고 가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도리어 NGO 사역을 통해 접촉점을 만들고 서서히 선교하는 방법도 부분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희 NGO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NGO 사역들을 소개하고, 법률적 문제와 자원 마련, 행정과 네트워크 형성 등 실제적 부분들을 교육할 것입니다. NGO가 쉬워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말해보라고 하면 답하기 어렵습니다. 각각 독특한 기능을 가진 NGO들을 시작할 수 있겠지만, 행정·재정·법률적 준비 없이는 많은 시행착오가 생길 것이므로 교육을 통해 준비하려 합니다.

-총장 재임 기간 동안 포부가 있으신다면.

저는 이 학교 1회 졸업생이고, 설

립자이신 故 임동선 목사님이 작은 할아버지 되십니다. 목사님 생전에 여러 경로를 통해 총장직을 권유받았지만, 설립자에게 누가 될 수 있어 사양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신지 1년 됐는데, 이번에 구성원들 모두가 추대해서 수락했습니다. 설립 때부터 내려온 학교 정체성을 잘 지켜 내고자 합니다.

-입학을 고려 중인 학생들에게 당부 하고픈 말씀이 있다면.

첫 회 졸업생 대부분이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선교에 열정이 있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온라인 과정 학생들 대부분도 선교 사입니다. 학생들도 매년 의무적으로 단기선교에 참여합니다. 그만큼 선교를 중요시하고, 교수진도 선교학 전공이 가장 많습니다. 선교에 강조점이 있는 학교이고, 개인적으로도 늘 선교에 대한 마음과 종말에 대한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금 주님이 데리러 오셔도 갈 준비가 돼 있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나 혼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자세를 갖고 기독교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도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대웅 기자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안일 해결을 한 달에 남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J.C Superstar 뮤지컬 단원모집

대상 : 초, 중, 고, 대

고문위원 :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

자문위원 : SBS 생활의 달인, 꾸러기 탐구생활 이상호PD

아이비 유학 Torrance / Irvine / LA shelbykwon65@gmail.com

T.(949)329-8222, (949)864-9162

CARAVAN CANOPY Division of Faith

교회 이동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카라반캐노피는 대형프린팅 분야에서 18년의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 현수막 | 천막
-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 프로모션 상품
- 디자인서비스

VINYL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2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50 Plus tax if applicable

MESH/POLY FABRIC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3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70 Plus tax if applicable

플래그, X 배너 거치대, 벽걸이 포스터, 롤업배너, 현수막, 미디어벽

1460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 T. 877.922.6679 | 한국어. 714.367.3046 | www.caravancanopy.com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72>

울타리선교회 19주년 음악회 준비

미주 LA 울타리선교회가 창립한지 19년이 되었다. LA 흠리스들을 돌보며, 흠리스 교회를 세워 그들과 예배를 드리며 사역하는 선교회다. 설립자 나주옥 목사를 도와 필자도 창립 때부터 같이 하며 지금까지 운영이사로 섬기고 있다.

LA에서 가장 귀한 사역자를 말하라면 필자는 단연 나주옥 목사를 꼽는다. 그 분은 천사다. 필자의 말이 아니라 그분을 겪은 많은 흠리스 형제들이 이구동성 칭송하는 말이다. 지나온 19년 세월을 돌아보면 울타리선교회는 많은 눈물과 땀과 고난과 위기로 점철된 기간이 있었다. 새벽 3시부터 일어나 물 끓이는 개량 지게차를 뺀 차량에 달고 도넛을 도네이션 하겠다는 업소들을 찾아 도넛을 모아 컵라면과 함께 다운타운 흠리스들이 모여 밤을 나는 거리 한켠으로 간다. 아침 식사로 날마다 3, 4백 명의 흠리스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며 지냈던 세월들. 행패 부리는 흠리스들에게 먹살도 잡히고 밀집도 당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마미"란 칭함을 받기까지 참으로 많은 눈물을 닦아야 했다.

어느 날엔 라면 물을 큰 통에 끓이기 위해 가스통 불을 지피는 순간 낡은 가스통이 터져 열굴 전체와 가슴, 손등에 심한 화상을 당해 통증 속에서 지냈던 시기들-시간이 지나 하나님 은혜로 피부는 기적같이 더 고운 피부로 새롭게 돌아 났다. 거처로 정했던 렌트 하우스에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페이먼트를 못내어 하루 아침에 쫓겨나서 어느 교회 창고, 어느 성도 창고 등 당신이 흠리스가 되어 전전하던 고난의 시기 등... 지나온 19년을 다시 살라면 엄두도 못낼 고난의 세월이었다.

그 세월동안 나 목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하나도 없이 오로지 흠리스들,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을 향한 사랑의 손길로 어느새 우리 한인 사회와 미국 정부가 신뢰하는 구제 사역자로 인정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받았다. 이제 LA에서 목회자들을 비롯한 대부분 한인들에게 울타리선교회와 나주옥 목사는 자랑스런 이름이 되어 있다.

그러던 울타리선교회에 한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며 지난 17주년 때부터 창립 기념 음악회가 열리게 되었다. 그 장소가 놀랍다. LA의 명소 월드디즈니홀이다. 그리고 기적과도 같이 그 홀에 걸맞는 세계적인 한인 음악가들이 자신의 은사를 재능기부하여 무보수로 음악회에 참여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울타리선교회는 이제 많은 기업체로부터 많은 물품과 식량을 기부받지만 재정을 기부하는 사람들은 적어 돈은 항상 부족한 선교회다. 그런데 음악회를 위해 지난 2년간 후원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 주셨다. 그리고 올해 8월 6일(월)에 창립 19주년을 맞아 세 번째로 열리게 되었다. 세계적 음악인들이 울타리선교회 후원을 위해 이번에도 마음들과 시간들을 내어 음악회를 하게 되었다.

이 칼럼을 읽는 독자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기를 기대한다. 지난 19년 LA 가장 밑바닥 인생이라 여길 수 있는 흠리스들과 친구가 되고 후견인이 되고 마미가 돼 주었던 자그마한 체구의 70세 여인을 보시길 바란다. 그리고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길 바란다. 20불 짜리 티켓 한 장을 구입해 그 음악회에 참석해 주시길 바란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단 한 폰도 허투루 쓰는 일 없는 참 천사의 사역을 위해 한 번 밀어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본다. 후원 문의) 213-819-3300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강태광 목사

부탄 행복의 선구자 4대왕 지그메 싱게 왕축

행복 선진국 부탄은 절대 빈민국, 절대 약소국입니다. 인구 75만 명으로 히말라야 동쪽 산자락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2016년 통계에 의하면 병원 29곳, 의사 145명, 공립학교 221개교, 사립학교 19개교, 자동차 29,914대, 전화 33,709대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낙후된 나라 부탄이 행복 선진국이라는 사실입니다.

행복 선진국 부탄 뒤에는 행복 선구자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4대왕 지그메 싱게 왕축과 5대왕 지그메 케사르 남기엘 왕축입니다. 1972년 17세에 부탄왕국 4대왕으로 즉위한 지그메 싱게 왕축은 재임 중 국민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정치를 합니다. 현재는 그는 은퇴한 왕으로 부탄 국민들의 절대적 추앙을 받습니다. 살아 있는 왕으로 국민들의 추앙을 받는 것은 보기 드문 일입니다. 그는 부탄의 행복 선구자였습니다. 행복 선구자로 추앙받는 이유를 몇 가지 간추려 봅니다.

첫째 지그메 싱게 왕축은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GNH(국민총행복지수)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그는 국가 발전 평가 기준으로 GDP보다 GNH가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10대 후반에 왕으로 즉위한 그의 말입니다. "모든 나라 정부와 국민들이 경제적 부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는데, 그것을 성취한 사람들은 안락한 생활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나라의 부가 늘어나도 빈곤하고 비참한 삶을 산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열망한다. 따라서 한 나라의 발전 정도는 사람들의 행복에 의해 측정되어야 한다. GDP보다 GNH가 더 중요하다." 70년대에 혁명적인 발언입니다.

둘째 지그메 싱게 왕축은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는 80년대 교육혁명을 통해 80%의 문맹률을 40%로 낮추었습니다. 나아가 그는 보건소를 확대해 평균수명이 43세였던 것을 66세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는 외에도 생태계 보호, 전통문화 보존, 정치적 민주화 실천 등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힘을 쏟았고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셋째 지그메 싱게 왕축은 2001년 절대군주제를 폐지하고 민주적 입헌군주제로 전환을 시작합니다. 그의 아들에 의해서 이 절대 군주제가 완전히 폐기되고 입헌군주제가 완

성이 됩니다. 왕을 선거로 뽑는 제도를 왕이 국민들을 설득해서 도입합니다. 혁명이나 전쟁, 외압 없이 절대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로 전환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해집니다. 대통령을 뽑아도 왕처럼 군림하려는 세태를 보면서 부러운 감정이 터져 나옵니다.

넷째 지그메 싱게 왕축은 자신이 마련한 입헌군주제의 정착을 위해 조기에 왕좌에서 물러납니다. 민주화와 분권화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51세에 왕좌를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왕으로서 수많은 업적을 이루고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던 상태에서 하야하여 은퇴한 왕이 되기를 선택합니다. 그가 정한 법(65세 은퇴 규정)에 비하여도 조기는퇴입니다. 그는 왕으로 조기 은퇴하여 노후를 즐기는 행복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지도자의 헌신이 행복을 견인함을 배웁니다. 국민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정치지도자가 있으면 나라가 행복해집니다. 사원들의 행복을 구하는 행복한 기업인이 있으면 기업 구성원 전체가 행복합니다. 성도들의 행복을 위해 만전을 기하는 행복한 목사가 있으면 온 성도가 행복합니다. 가족의 행복을 추구하는 가장이 있으면 온 가족들이 행복합니다. 우리들이 속한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가시에 찔리며 날 사랑하신 주님”

1980년 시인과 존장으로 데뷔해 아름다운 노랫말과 곡으로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준 유음시인 하덕규 목사가 LA를 찾았다. 지난 7일 저녁 갈릴리선교회(한천영 목사) 2018 하프타임 집회 강사로 나선 하목사는 노래와 함께 간증과 말씀을 이어가며 참석자들에게 깊은 영혼의 울림과 감동을 선사했다.

하목사는 이날 집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마음 때문에 견딜 수 없었다”면서 “주님은 이런 가시나무와 같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 가시에 찔리시면서 끝까지 품으셨다”고 말했다. 그는 “가시나무 덩굴 가운데 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이 머리 속을 스치듯 지나갔고, 곡을 쓰기 시작해 불과 10분 만에 가시나무 곡을 완성했다. 하나님께서 이 곡을 주셨다”고 간증했다.

또 그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7년 전 위암 판정을 간증했다. “44살 병원에서 암 판정을 받고 ‘내가 하



갈릴리선교회에서 열린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는 하덕규 교수

나님께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런 시련을 주시나’ 질문하고 또 질문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동안 네가 나를 정말 사랑했니?’라고 물으셨다. 나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요즘 매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생각하며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면 뭐라 하실까?

이 본질적인 물음을 가지니 비본질적인 것은 내려 놓게 된다”면서 “고난이란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자”고 말했다.

한천영 담임목사는 “2018년의 절반을 시작하며 각오와 결의를 다지는 집회였다. 선교적 교회로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 다짐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정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 사장 : 임덕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사)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미주서부지회 창립총회 감사예배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 (행 10:33)”

일시: 2018년 7월16일(월) 오전 10시
장소: 가든스윗호텔

연락처: (915)443-9556, (323)257-2614

- 대표회장: 이정남
- 상임회장: 김병도, 최학량
- 운영회장(가나다순): 김정호, 민종기, 박성규, 박효우, 신승훈, 양수철
- 공동회장(가나다순): 김영구, 남상국, 심진구, 이순천, 이정현, 조은철, 정해진, 최정남, 홍성관, 하태신
- 부 회 장: 양병삼, 홍성표
- 총 무: 이준우
- 부 총 무: 폴리
- 서 기: 김병호
- 부 서 기: 김성곤
- 회록서기: 최경일
- 회 계: 이철
- 감 사: 고재원, 김호, 추창효
- 사무총장: 김철수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빈곤

요한계시록 3:14-22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요한계시록 3:14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15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도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17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18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19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0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21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22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는 골로새라는 도시에서 서쪽으로 65리 떨어진 곳에 있었고 동쪽으로는 예게해 연안으로 가는 예베소가 있고, 남쪽으로는 시리아로 가는 브루기아 지역의 관문으로서 널리 알려진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직조사업이 왕성했고 안약을 만드는 풀이 자생하는 곳으로 안약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이처럼 여유로운 형편의 삶을 살다보니 하나님 앞에 간절함 기도가 없어지고 신앙생활은 게으르고 나태해졌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은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그렇게 되어 지기를 믿고 동의한다는 아멘으로 답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답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충성을 다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 얻기를 소원하시며 하늘나라를 물려주시길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증거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이 만물을 말씀(예수님)으로 창조해 내실 때에 그 근본이

되신 분이십니다. 창조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되어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시듯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항상 지켜보신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은 그들이 차지도 덩지도 아니한다 했습니다. 이처럼 신앙에 믿음과 내세소망의 확신이 없으니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거나 사랑할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기(遺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갈라지면 우리에게겐 지옥밖에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부자이고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교인들은 육체적인 세상 조건만을 중요시하여 그들의 신앙은 끝이 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의 심령은 죽어 있었기에 예수님은 영적 기준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곤고(곤란하고 괴로움)로 인해 지옥불에 영원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가련한 처지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라서 심령은 죽었고 윤희불에 던져지기 직전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영의 눈이 멀어 육신의 세상 조건만을 바라보고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오만하고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십니다. 또한 벌거벗은 수치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18절의 “내가 너를 권하노니”는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예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아량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는 예수님이 성령의 불로 단련시키신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져 영적으로 부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는 그 보혈의 힘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의(義)의 세마포 예복을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악하고 거짓된 무슨 나쁜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가 믿어지게 하실 때에 중심으로 애통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면 그 엄청난 죄가 예수님의 피로 씻김 받아서 예수님이 입혀 주

시는 것이 하얀 세마포입니다. 이것을 입으면 전날에 지은 죄와 허물, 괴로움이 이 세마포로 인해 가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완전한 구속(拘束)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것은 육신의 탐욕과 허욕을 위해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눈을 떠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인생으로 거듭나야 함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9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열심을 내어 서둘러서 회개하라고 재촉하십니다. 20절에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씀은 무디고 완악한 심령들이 마음 문을 굳게 닫아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일러줘도 들어갈 수가 없는 그 문 앞에 서서 예수님의 못 박으신 피 묻은 손이 애타는 심정으로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애타는 두드림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이 영적 양식으로 먹이고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날 게으르고 나태했으며 교회 부흥의 장애 요인이 되고 목자가 목회하는 데 전혀 쓸모없는 자로 예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서 유기될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부지런히 회개해서 주변 환경과 형편, 원수마귀의 환란과 핍박을 이겨내는 사람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21절)”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들의 신앙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갑지도 더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상태여서 권고하고 질책하고 야단을 쳐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것은 화인(火印) 맞은 심령입니다. 불로 도장을 찍은 것과 같은 것처럼 그 자리는 아무런 감각도 느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심령이 무디고 완악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지금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알아 천국에 소망을 두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온전히 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8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의 불로 단련시키신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져 영적으로 부요한 사람이 되어 예수님의 보혈의 힘을 믿고 회개하여 의의 세마포를 입어 지금까지의 죄악을 가리고 오로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교회가 잘못되면 그 도시가 망하고, 교회가 망하게 되면 나라도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교회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허물어지고 흑암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께로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시카고 기독교방송	AM1190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LA 미주 복음방송	AM1310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신문 설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담임목사 청빙

캘리포니아주 LA동부에 위치한 **인랜드교회**는 미국장로교(PCA) 한인 서남노회 소속 교회로 1984년 8월에 설립된 교회입니다. 그 동안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자녀들을 포함한 2000여명의 교인들이 예배공동체, 훈련공동체, 선교공동체로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제 5대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자격

- 미국 정규 신학대학원 졸업한 분
- 5년 이상 미국에서 Full-time으로 목회한 분
- 미국장로교(PCA) 한인 서남노회 회원 혹은 노회 가입이 가능한 분
- 이중문화권(한국, 미국)에 익숙한 분
- 미국 영주권 혹은 시민권 보유한 분

제출 서류

- 본교회 지원서 작성 (지원서는 교회 홈페이지 www.inlandchurch.org 에서 다운로드)
- 이력서 (가족사진 첨부)
- 목회 계획서(목회 비전과 계획)
- 목회 안수 증명서, 최종 졸업 및 학위 증명서
- 1년 이내의 한국어 설교 2편 동영상 (DVD/오디오파일도 가능) 및 영어설교 1편 (Optional)
- 한글 본인 소개서 (영문 소개서 - Optional): 신앙고백, 목회경험, 성장배경, 가족소개, 소명
- 3명의 추천서(추천서는 추천인이 본교회 searchcommittee@inlandchurch.org로 직접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Attn: 인랜드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제출 마감

2018년 9월 30일(주일)까지 마감합니다.
* 제출 방법: 이메일 (PDF로 작성) 또는 우편
*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비밀이 보장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로 활짝 웃으세요.



프로지 PRO-Z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 없이 빠르게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령대별 당뇨병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환자 인지율	54.4%	73.2%	81.3%

특히, 30~44세의 젊은 당뇨병 환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당뇨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아연으로 끝내라" 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당뇨병만으로는 당뇨병이 낫지 않는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체내에서 대사를 거쳐 에너지로 변한다. 그 에너지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3대 영양소(탄수화물·지방·단백질)라고 하며, 이 영양소들이 에너지로 바뀌는 작용을 돕는 물질이 비타민과 철, 아연,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다. 대사를 촉진하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면 애써 섭취한 3대 영양소가 에너지로 바뀌지 못하고 체내에 남아돌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혈액 속에서 벌어지면 고혈당·고지혈증이 되고, 지방세포에 축적되면 비만으로 이어져 혈당이 올라가는 사태를 일으킨다. 이것이 당뇨병의 원인 중 하나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 아연이 인슐린 작용을 돕는다.
당뇨병 환자들 가장 큰 고민은 꾸준히 약을 먹어 혈당을 낮추어도 당뇨병이 완치되지 않는 것이다. 인슐린 주사도 맞으면 맞을수록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해서 마음이 편치 않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인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인슐린이 작용하지 않으면 체내 세포 대부분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작용을 인슐린이 하는 것이다. 다행인 점은, 인슐린이 적절히 작용하도록 돕는 영양소가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아연이다. 아연은 뼈의 신진대사를 비롯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미네랄이다.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 내보내는 통로인 쓸개관에 필요한 효소와 콩팥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효소가 기능을 발휘할 때 인슐린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지며, 빈혈과 식욕부진, 미각장애, 불면증에 걸리거나 활력이 솟지 않는 등 크고 작은 증상에 시달린다.

아연은?

체내에 소량 존재하지만 생체내 여러 효소의 구성성분이 되고, 핵산의 합성이나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관여하는 필수적인 미량 영양소입니다.

당신의 체내 아연(Zn)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나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 아연(Zn)은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 및 특정상황에 노출된 분들에게 체내흡수가 어렵고 흡수가 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유실되어 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프로지의 특별함은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 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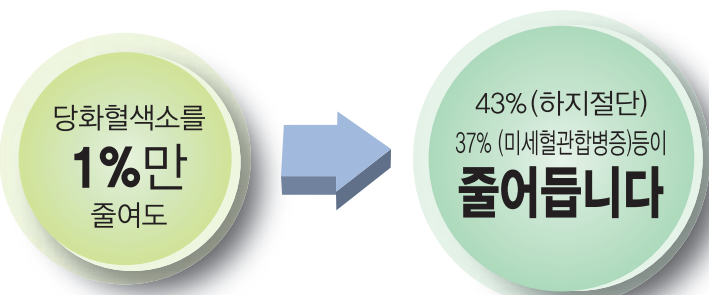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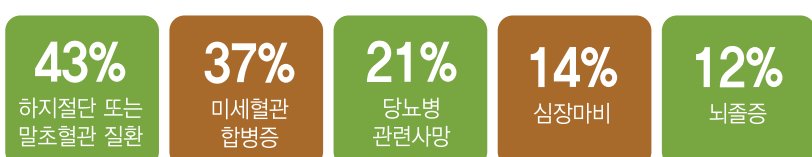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당화혈색소 수치는 당뇨 합병증 발생을 반영하는 가장 좋은 지표입니다. 당화혈색소를 정상으로 유지하도록 혈당을 철저히 조절하면 합병증 발생은 줄어듭니다.



당화혈색소 수치개선은 일시적 혈당조절이 아닌 신체기능의 회복에서 수치가 나타납니다.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 국가대표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 UCLA학대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 미 연방재향군인병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등

송문기 박사의 Cyclo-Z

인슐린감도개선을 통한 당뇨치료제 신약후보물질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미국 정부기관(V.A. Hospital)에서 투자지원, FDA승인 및 임상 2a를 성공적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신치료제 상용화를 앞둔 단계에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이러한 업적과 인류사회에 미치는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중 하나인 Marquis Who's Who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1병 \$69+Tax
3병 \$180+Tax
6병 \$35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H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문의 전화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할렐루야 2018 대뉴욕복음화대성회가 9일 프라미스교회에서 개막됐다.

“복음통일만이 진정한 통일”

이영훈 목사 강사로 뉴욕 할렐루야대회 개막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만호 목사)가 주최하는 할렐루야 2018 대뉴욕복음화대성회가 9일 오후 7시 30분 프라미스교회(담임 허연행 목사)에서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됐다.

대회장인 이만호 목사는 대회를 통해 “뉴욕은 세계의 경제, 문화, 예술의 중심지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로마시대 안디옥과 같은 곳”이라면서 “이번 할렐루야대회를 통해서, 안디옥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던 것과 같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 뉴욕의 교회들마다 큰 권능이 임하여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할렐루야대회는 여느 때보다 다양한 찬양 순서를 선보인 것이 특징이었다. 한국에서 라스트찬양팀, 송진희, 구순연 국악가수, 백기현 교수, 빨라중창단, 여의도권사찬양대, 엔제이클래식오카리나찬양팀, 뉴욕장로성가단, 권사합창단, 뉴욕뉴저지목사사모합창단, 뉴욕크리스천코랄합창단, 필그림무용단, 주빌레이션 등이 참여했다.

대회 첫날은 이광희 목사(준비위원장)의 사회로 여호수아 찬양팀 경배와 찬양, 허연행 목사(부준비위원장) 개회기도 및 대표기도, 이만호 목사 대회사, 황규복 장로(증경이사장) 성경봉독, 프라미스찬양

대 찬양, 이만호 목사 강사 소개, 이영훈 목사 설교, 뉴저지 목사합창단 찬양, 백기현 교수 헌금송, 양민석 목사(부준비위원장) 헌금기도, 후원금 전달식, 김진화 목사(서기) 광고, 한재홍 목사(증경회장단 회장)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후원금은 학생 장학금, 원주민 선교 후원금, 미자립 교회 후원금, 고려인 교회 및 선교회 후원금, 어린이 할렐루야대회 및 청소년 할렐루야대회 후원금 등 총 5개 분야에 전달됐다.

이영훈 목사는 ‘믿음의 역사’(히11:1-6)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믿음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영훈 목사는 한반도 평화통일과 관련, “복음이 북한 땅에 전달되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 때가 진정한 통일”이라면서 “복음으로 통일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또 이영훈 목사는 “하나님께서 현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들어 쓰시고 있다. 북한이 대화 무대에 나오는 등 전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대화를 통해 북한이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덧붙였다.

이번 대회는 11일까지 개최됐다.



제23차 북미주 한인 CBMC 시카고대회

북미주 한인 CBMC 연합회 대회 개최

시카고에서 열려... 김영균 총연합회장 선출

북미주 한인 CBMC 총연합회가 주최하고 CBMC 미 중북부 연합회가 주관한 제23차 북미주 한인 CBMC 시카고대회가 'NET@WORK, 그물을 던져라'를 주제로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웨스틴 오페라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장재중 회장(유니그룹)이 주강사로, 폴 현 은평장(필라델피아 모야뱅크), 이상백 회장(Orion 투자개발 대표이사), 김은영 교수(미 환경청 국가 환경 정책 및 기술 자문위원) 등이 특별강사로 초청됐으며 시카고, 북미주를 포함해 한국, 유럽, 아시아 CBMC 회원들은 물론 한국기독교실업인회장 외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상근 북미주 총연 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이번 대회는 일터 사역자들이 모여 내 일터가 사역지임을 확신하고 성경적 경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박상근 총연 회장은 “많은 분들이 참석해 너무 귀한 대회였다. 특별히 비즈니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콜링’을 가진 분들이 모여 성대한 잔치를 열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고 전하고 “시카고는 ‘바람의 도시’라고 하는데, 이 도시의 비즈니스 업계에도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어서 비즈니스 업계에 정말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한다”고

말했다. 이승율 한국 CBMC 중앙회장은 “시대 트렌드에 맞춰 앞서나가며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창조적 리더십으로 전 세계 비즈니스 리더들 가운데 가장 모범이 되는 미주한인 CBMC가 되기를 축복한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이번 대회는 2박 3일간 일정으로 특강, 주제 강의, 실천사항 토의, 간증, 교제의 시간 등의 프로그램과 두 번의 만찬으로 진행됐다.

북미주 한인 CBMC 총연합회 회장으로는 김영균 북미주 총연합회 수석부회장이 선출됐으며, 수석부회장으로 북미주 한인기독교실업인회 중부연합회 회장 배현규 씨가, 부회장으로 전 애틀랜타 회장 박하실 씨가 각각 선출됐다.

한편, CBMC는 일터 사역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크리스천 실업인과 전문인들의 모임으로 전 세계 96개국에 조직되어 있으며 CBMC는 세계 경제대공황이 시작된 1930년, 시카고에서 7인의 크리스천 실업인이 모여 최초의 모임을 시작했다.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자”는 모토로 현재 한국 CBMC는 국내 273개 지회, 해외 130개 지회를 두고 있으며 7천5백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수영 기자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비밀중학교 / 토요새벽-17와 비몬트 크니
주중새벽-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www.LASarang.com

김기섭 담임목사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만2세를 위한 기어,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순종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장태원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412 (6가와 카탈리나)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주일예배 오전 10:50 **새니킴 담임목사**
평신도 리더십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30
토요일침례 오전 8:00

LA씨티교회
 4322 Wilshire Blvd. #301,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아이부** 오전 11:00 **한천영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화새벽** 오전 6:20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강진웅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갈보리민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향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토) 오전 6:00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진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예배**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새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저녁 7:30 **김문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박헌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전양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대예배 1부 오전 8:00 **세각족 성경공부** 오후 1:00 **정병노 담임목사**
대예배 2부 오전 11:00 **종보기도회** 오전 1:0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새일교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384-8690, (213)320-7240 Email: lasehil2011@gmail.com
 (87와 Westmoreland 교차로 First Baptist Church 옆에 위치)

주일예배 오전 10:45 **금요예배** 오후 8시 **박은중 담임목사**
주일오후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시

에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주일 1부예배 (분양)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정장수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분양)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분양) 저녁 8: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리셋예배 (캘리포니아 소셜메일) 오전 11:00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믿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박효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90057
 T. (213) 381-9490

1부예배 오전 8:00 **EM** 오후 2:00 **신승훈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30 **라티노** 주일 예배 **오전** 5:0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목요일 예배 **오전** 7:00
4부예배 오후 6: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이명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친.초.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민중희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 (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hyun.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곽부환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이순환 담임목사**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장지원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라스베가스,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경공부** 오후 8:00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아침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신용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유저부 예배** 오전 11:00

나성한미교회
 복음의 본질위에서 성령이 감동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김성원 담임목사**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물 새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김준식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한어청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남가주살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 787-1004 shalomch.org

장주영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시
2부 예배 오전 10시 45분
중보기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성경공부 오후 8시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금, 6시 30분(토))

뉴스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272-9126 / www.newsongcorona.com

조용철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김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Youth &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토요찬양예배 오전 10:00-오후 1:00

뮤리아타 한인장로교회
건강한 교회 성숙한 신앙
24736 Washington Avenue, Murrieta, CA 92562
T. (951)696-1034 / www.muriatachurch.org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591-6500 sunhanchurch.org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교동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최승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622-2324, F. (909)622-1480/inlandchurch.org

이춘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장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51) 966-9191

최승목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시(지성전)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본성전) 매일OT 월-금 오전 6: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정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1부예배(EM)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 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서보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강신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김경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박성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금요성령대방회 금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이상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라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ivision.org

이호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월일예배 오후 1:30
이름답도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롬 10:15)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 (562) 453-5644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530-4040/F. (310)530-8400/cornerstonetv.com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English Ministry Sunday Service 11:00 am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도렌스 조은교회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cg.org

윤 목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8:00
주일2부 오전 12: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90274
T. (310)715-9902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중교동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여호와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윤대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주일 2부 오전 9:30 금요일성경집회 오후 7:45
주일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오명찬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9:3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최혁 담임목사
밸리채플 Valley Chapel MP채플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19514 Ronald St., Northridge, CA 91326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T. (818)363-5887 Tel: (232) 837-0900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발대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 ©여의도순복음교회 제공

대회 통해 한국교회 섬기고 한국교회 배울 것

2020 프랭클린 그레이엄 페스티벌 열린다

‘2020 프랭클린 그레이엄 페스티벌 서울·경기지역 발대식’이 준비위원회(대회장 이영훈 목사) 주최로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 루나미엘레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대식에는 대회장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와 빌리 그레이엄 복음주의 전도협회 아시아 총괄 디렉터 채드 해몬드 목사를 비롯해 유영모 목사(한소망교회), 한기재 목사(중앙성결교회), 조봉희 목사(서울지구총교회), 권태진 목사(군포제일교회), 최이우 목사(종교교회), 박성민 목사(CCC), 김윤희 교수(헛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 림형천 목사(잠실교회) 등 서울·경기 지역 목회자와 교단 관계자, 여성 지도자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발대식에서는 페스티벌의 성격과 진행 방식 등을 설명하고, 서울·경기 지역 교회가 담당해야 할 일들을 점검했다.

이영훈 목사는 “2020 프랭클린 그레이엄 페스티벌은 교회의 역량을 과시하는 대형집회가 아니라, 전도하고 결신하도록 돕는 전도집회”라며 “성공적인 페스

티벌을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 전도의 열정, 영혼 구원의 열정을 회복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목사는 “엑스포로74 대회를 통해 한국교회가 역사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모습을 지켜왔다”며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영향을 받은 한국교회는 새로운 부흥을 이뤄내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발대식에서 설교를 맡은 유영모 목사는 ‘위험은 기회다(마16:18-19)’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조봉희 목사는기도했다.

채드 해몬드 목사는 “빌리 그레이엄 전도협회는 한국교회와 아주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다. 1973년 집회를 통한 성령의 역사는 물론, 북한을 지원하는 일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며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부인 루스 그레이엄은 평양에서 학교를 다녔고, 여동생 앤 그레이엄은 대전에서 선교사로 일하는 등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교회를 섬기고 배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대웅 기자



장로수련회 현장에서 현수막을 들고 시위하는 사람들

“장신대 임성빈 총장 징계하라” 예상 통합측 장로 2,154명 서명 단 하루 만에… 임 총장 측 “사실과 다른 음해”

“동성애에 대한 태도가 미온적”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 한국 장로회신학대학교 임성빈 총장을 비롯한 학교 측이 학교가 소속된 교단인 예상 통합측 내에서 또다시 오르고 있다.

통합측 전국장로회연합회가 장로 약 4천 명이 모인 가운데 4~6일 일정으로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장로수련회를 진행 중인 가운데, 5일 오후 2시 기준으로 무려 2,154명의 장로들이 ‘장신대 동성애 문제와 동성애 옹호신학의 이단성에 대한 청원명부’(이하 청원명부)에 서명했다. 거의 하루만에 참석자들 중 절반 이상이 참여한 셈이다. 장로수련회는 통합측 내에서 총회 다음으로 규모가 큰 행사로 그 영향력이 상당하다.

그런 자리에서 이토록 많은 수의 장로들이 일제히 서명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서명이 이뤄진 자리가 총회가 아닌 친목성이 강한 수련회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교단 내 지도자급 인사들이 ‘장신대 동성애 사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청원명부는 구체적으로 △장신대 임성빈 총장 징계 △소위 ‘무지개 사건’의 주제인 교내 동아리 ‘암하아레츠’의 해체 및 관련 학생들 징계 △본 사건 담당 교수들과 채플 담당 학교 관계자들 징계 △동성애에 대해 적극 지지한 교수들의 해직 처리와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교수들 징계 △동성애에 대해 지금까지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는 장신대 교수회의의 공

식적 사과를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교단 내) 이단사비대책위원회가 ‘동성애 사상은 이단이다’를 연구하도록 헌의할 것도 촉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장신대 신정 이사장(광양대광고회 시무)과 임성빈 총장 명의의 ‘장로회신학대학교의 동성애 문제 관련 입장’이 5일 나왔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장신대는 동성애 문제와 관련하여 예상 통합 총회와 입장을 같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① 신입생 반동성애 입학서약 실시(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② 총장직속 동성애대책자문위원회 조직 및 동성애 관련 교육지침 작성·교육 ③ 동성애 관련 학생, 교원, 직원, 정관 시행세칙 및 관련 규정 개정 ④ 학부 총학생회 및 신대원 학우회가 총회와 입장을 같이 한다는 성명서 발표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신대를 왜곡·비방하고 반대하는 일은 사실왜곡을 넘어 장신대와 총회공동체 모두의 혼란을 야기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사실과 다른 음해와 공격으로부터 장신대를 보호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한편, 장신대는 얼마 전 교내 채플 시간에 소위 ‘무지개 사건’을 일으킨 학생들을 조사하겠다고 지난 5월 19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당시 “학교와 교계에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기에 정확한 조사와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약 두 달이 흐른 지금까지 그 조사 결과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대웅 기자



나이지리아에서 이슬람 무장단체에 살해당한 기독교인들의 장례식 ©한국선교연구원 제공

나이지리아 교회 “순전한 대학살 경험”

지난 1월 이후 6,000명 이상 학살 당해

나이지리아의 교회 지도자들은 기독교인들이 ‘순전한 대학살’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이후 약 6,000명 이상의 여성과 아이들이 풀라니 무슬림들에 의해 학살 당했다고 밝혔다.

나이지리아기독교협회는 지난 주 성명을 발표하고 “플라토 주와 선별된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순전한 대량학살이며 반드시 즉각 멈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회 지도자들은 “무장한 풀라니 목자들의 급습으로 약 6,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들은 대부분 아이들과 여성들”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이 땅에서 발생하는 이같은 무감각한 피흘림을 즉각적으로 멈추고, 주민들이 스스로를 보호해야만 하는 무정

부 상대를 막아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전했다.

또 유엔을 비롯한 국제적인 공동체가 나서서 풀라니 목자들의 공격을 중재하고, 이들의 세력이 다른 국가로 번지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성명서는 올해 들어 수 차례의 대량학살이 발생한 사실을 언급했다. 가장 최근 사건은 지난 6월 조스시 인근 농장에서 발생했다.

비록 일부 매체에서 이번 사건을 지역 공동체 간의 토지 분쟁으로 규정해 보도했으나, 교회 지도자들과 박해감시단체인 오픈도어즈, 국제기독교연대 등은 “기독교인들이 의도적으로 표적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강혜진 기자



미국성공회 총회가 열린 오스틴 컨벤션센터 전경. ©EPISCOPAL NEWS SERVICE 제공

美성공회 ‘성별 없으신 하나님’ 검토

기도문 개정안에서 다룰 것 논의 중

지난 4일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제79회 미국성공회 총회가 열린 가운데, 하나님은 성별이 없으신다는 내용이 담긴 기도문 개정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 관계자들은 지난 1979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바 있는 성공회 기도책에 하나님은 성별이 없으신다는 내용을 강력하게 담는 것에 관해 결정할 계획이다.

관계자들은 또 동성결혼과 새로운 성 정체성 수용을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기도책 개정을 제안한 위원 중 한 명이자 텍사스 브라이언트신학대학교 히브리어 교수인 윌 가프니 박사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내용의 변경은 성별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여성의 평등을 지지하신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남성들과 하나님이 동일한 카테고리에 있는 한, 평등을 위한 여성들의 일은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 솔직하게 생각해 보자면, 이는 여러가

지 면에서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기도책의 전면적인 재개정은 수 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2030년까지는 이같은 내용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결의안을 지지하는 이들은 교회가 이를 개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 현재 기도책을 살펴볼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가프니 박사는 “성중립적인 내용이 담긴 기도책을 꺼리는 사제들이 많을 수 있지만, 아무런 변화도 만들지 않는 것이 더욱 해로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성공회는 성직자들의 동성결혼 허용을 포함한 수 년 간의 친동성애적 결정들로 지난 2016년 세계성공회 총회에서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미국성공회는 교리 또는 정치적 사안에 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됐으며, 3년 동안 전 세계 기독교 및 초교파 활동에 있어서 성공회를 대표하는 자격을 박탈당한 상태이다.

강혜진 기자

영국 레즈비언 “배우자 비자” 승소

“더 많은 동성애자들이 홍콩으로 향할 것” 전망

영국의 레즈비언 커플이 홍콩에서 진행된 배우자 비자를 받기 위한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QT’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여성은 동성애자로 2011년 영국에서 7년 간 함께 지낸 파트너와 ‘시민 연합’(동성 간 인정된 혼인관계)을 맺었다. 영국은 지난 2004년부터 동성애자 커플에게 결혼과 비슷한 법적 권리를 허용하고 있다. QT는 2011년 자신의 파트너가 홍콩에서 일 자리를 구하게 되자 함께 홍콩으로 이주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개별 비자가 없이 일 자리를 얻거나 홍콩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배우자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이민국 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했다. 홍콩에서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은 불법이나 아직 동성결혼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수년 간 법적 공방을 벌인 끝에 홍콩 항소법원에 이어 대법원 역시 그녀의 손을 들어주었고 그녀는 앞으로 홍콩에서 거주하며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

대법원은 “고용비자가 허가됐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필요한 기술이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 그는 이성애자일 수도, 동성애자일 수도 있다”며 “부양가족을 함께 데려올 수 있는지는 홍콩으로 이주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말했다.

BBC는 이번 판결로 더 많은 동성커플이 홍콩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강혜진 기자

O.C./앨버틴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구봉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아태학원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한국어) 오전 8:00 **민경엽 담임목사**
2부(한국어) 오전 10:00 말씀묵상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3부(영어) 정오12:00 한국학교(토)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0:00 Youth Orchestra (주일) 오후 12:30
토요새벽연합예배 오전 6:30

나침반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691-0691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셀가족 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선언예배 오전 11:00

남가주 베델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침례 오후 8:00 **박재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한국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생명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안창훈 담임목사**
영어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후 12:20 **민승기 담임목사**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8:45 금요사바하 오후 7:30 **이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김현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한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권혁빈 담임목사**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어부 오전 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앨버틴온누리교회
다들 새우를 새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글어) 장년부 수요일새벽기도회 오후 7:30
FAM예배 오전 11:30(청년 영어)

앨버틴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일예배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일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주일 오후 1:30 **김인철 담임목사**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 M(Youth) 오전 11:00

오렌지카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온영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김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후 1:30 **박훈 담임목사**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오전 11시 30분 **람학훈 담임목사**
어린이예배 오전 11시 30분
찬양예배 오후 7시(수) 재자서서 오전 9시 30분(금)
중보기도 오후 3시(토) 새벽기도 오전 6시(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백정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시 30분
3부예배 오전 11시 20분
영아예배(EO) 오전 9시 30분
청년예배 오후 1시 30분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안성복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시 30분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시

다우니제일 교회
새 사명을 입으라 (엡4:24)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PASTOR JUSTIN KI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2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PASTOR JOSEPH SUK**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firstchurch.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PASTOR HAROLD KI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678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Sunday Service: 9:30 AM **PASTOR RONNIE PARK**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L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양로병원 노인 분들을 위한 제25회 찬송가 경연대회

올해로 23년째 양로병원을 봉사 하던 중에 어려운 형편으로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외로움도 달래고 치매 예방을 위해 찬송가를 암송하므로 매일 소일거리가 생겨, 정신적으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섬겨주실 봉사자와 동역자 구합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예배시간

장소 : 중앙양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시간 : 2018년 12월 15일(토) 오전 10시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상금 후원을 도와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체크이름 : Loving Church of the Disabled =>L.C.D

협찬

나성열린문교회, 은혜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LA사랑의교회
가주처과 대표 오득재 원장, 마동환 변호사 그룹, 팔가순대
뉴욕제과, 한인동포재단, OC 한인회, 행복재단(한영재)
올림픽 칼국수, M.G.M

후원 기독교일보, FHM미션

장애우사랑교회

연락처 : (213)870-8474/ Fax:(323)870-5522
P.O.Box 742017 Los Angeles, CA 90004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픽/업/가/능

P.G.A Player Tour	(12~14살 1~2명 모집)
P.G.A Player Tour	(8~11살 1~2명 모집) (6~7살 1~2명 모집) 초보가능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문의 : 최 제이콥 프로

T(310) 598-0746

LA예담교회 1134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목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ea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
LA 예담교회 담임목사

가을 맞이 고국일주 여행

www.kaarp.org

그리운 고국으로 어르신들을 편안하고 즐겁게 모시겠습니다.



일 정
- 고국방문 7박8일
한국일정 (10/6-10/13)
\$1,140 + 항공료
(특급호텔, 식사, 가이드팁 포함)
- 오션 베트남 3박5일
베트남일정 (10/2-10/6)
고국+ \$450

www.KorusTour.com
문의: 213) 503-6196 계시카
213) 842-7079 JAY LUM



새 예루살렘의 소망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다. 다만 모세의 뱀이 다른 뱀을 삼켜버립니다.

사탄이 주는 신비와 환상, 악령이 역사하는 기적들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종말에는 사탄이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 람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거짓선지 자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노략질하는 도적들이 있음 을 경고하셨습니다. “그 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 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 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마24:23-24).

천국에 관한 한, 계시록 21-22장 처럼 믿을 만한 자료는 세상 어디에

도 없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해설 도 말로 전할 수 없는 광경을 보고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한 것 임을 잊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사 도 요한은 말과 문자로 표현하자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최선의 영 감으로 적었을 것입니다. 영광의 예 수님을 본 이사야, 다니엘, 바울과 요한의 묘사는 각기 다르지만 흡사 합니다. 천국이 이처럼 멋진 이미지를 사용하여 에스겔과 사도 요한이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주석가들의 다양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중 요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할 수 없이 좋은 곳에서 아름다운 환경 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처를 정하시고 죄와 상관없게 된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영생을 지내 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은 통합니다. 처음에 지어졌던 아름다운 땅, 에덴이 다시 금 뿔선 더 영광스럽게 회복되어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됨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참여할 수 있다면, 100년의 환란이 문 제가 안 됩니다. 여기 참여할 수 없 으면, 100년의 호강이 허무합니다.

프린스턴 대학이 세워진 이유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저는 만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 명문 5개 대학이 몰려 있는 메사추세츠 앤허스트라는 마을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 게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시작 된 부흥의 본고장에서 지금도 그의 지성과 영성을 뛰어 넘는 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탁월한 조나단 에드워 즈 목사가 목회했던 현장을 접 하면서 제 마음에 부흥에 대한 열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저의 작은 꿈이 있다면 내 목회에 뉴잉글랜드 대각성 운동(The Great Awakening)같은 하나님의 부흥을 보고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메사추세츠에 정착했을 때, 무엇보다 먼저 고등교육 기관을 세워 목회자를 양성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1636년 에 하버드 대학이 시작됩니다. 교회가 많이 개척되면서 학문과 영성을 갖춘 목회자 양성이 더욱 필요하여 그다음으로 1701년 예일 대학이 세워지게 됩니다. 목회자를 키우는 학교가 7-80년을 흘러가면서 영성보다는 학문 쪽으로 치우는 경향이 두 드러지게 나타나고 실질적으로 회

신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이 버젓 이 교회의 직분을 맡는 일도 일어나 게 됩니다. 좀더 철저하게 목회자를 훈련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 되면서 북아일랜드 출신 윌리엄 테 너트 목사가 소위 ‘통나무 대학’을 만들어 학문적인 훈련도 필요하지만, 가슴 훈련이 더 중요하다 믿고 경건의 훈련과 함께 목회자 양성에 나섭니다. 이 일이 구체화되고 때마 침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와 영국에서 건너온 조지 윌필드 목사의 설교 와 함께 하나님이 몰고 오신 대각성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때 목회자로 부름 받은 자들은 하버드, 예일 혹은 유럽으로 건너가 신학을 공부하 는 옵션이 있었는데, 이미 하버드와

예일은 많이 신학적으로 정통성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침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가 목회하던 교회 에서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을 금했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쫓겨나, 아메리칸 인디언 선교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때, 1746년 뉴저지에 한 대학 이 들어서게 됩니다. 좌경화 되어가는 하버드와 예일에 대하여 다시 바른 신학을 세워 올바른 목회자를 키워내겠다는 목적으로 대학이 서 게 됩니다. 이것이 훗날 통나무 대 학과 합쳐서 프린스턴 대학이 됩니 다. 그리고 바로 이 대학에 3대 총 장으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가 초 청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최고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이 렇게 한 사람의 바른 목회자를 길러 내기 위해서 세워진 교육기관들이 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 내가 왜 (영어도 잘 못하는데) 헬리어, 히브 리어를 공부하며 성경을 원어로 읽 는 고생을 하는지 몰랐을 때, 설교 한 편 제대로 하기 위함이라고 말 씀해 주셨던 교수님이 자주 생각이 나서, 오늘도 설교 준비에 열공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함께 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김지성 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얼핏 자신의 삶을 혼자서 이루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부여된 창조 목적 이 ‘함께 하는 삶’으로 완성됨을 아 션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사람을 창조하실 때 ‘돕는 사람’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 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창 2:18; 새번역) 성경은 배우자를 ‘돕 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고 나면 사 람을 보는 관점을 달리 해야 합니다. 사람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이 보 여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또는 인연 속에 담긴 하나님의 간섭이 보 여야 합니다. 인간관계는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흔히 인연을 중시하는 종교가 불교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에서는 ‘웃것만 스 쳐도 인연’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입 니다. 하지만 불교는 인연의 심오함 은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 인연을 끊 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반면에 성경 은 불교보다 더 인연을 강조합니다. 모든 인연 속에는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 연을 아름답게 가꾸고, 인간관계를 증진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렇기에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일수록 인 연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예수님 혼자서도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예 수님은 자신의 생애 중 가장 중요한 공생애 기간 동안 사람 속에 묻혀 사 션습니다. 홀로 보내신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 다. 그나마 홀로 보내 신 시간조차도 고독을 즐기기 위해 홀로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 나님과 교제를 위해 사람을 물리 치신 것일뿐이었습니다. 신약에 많 이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가 함께, 서로, 피차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예수님 혼자서도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예 수님은 자신의 생애 중 가장 중요한 공생애 기간 동안 사람 속에 묻혀 사 션습니다. 홀로 보내신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 다. 그나마 홀로 보내 신 시간조차도 고독을 즐기기 위해 홀로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 나님과 교제를 위해 사람을 물리 치신 것일뿐이었습니다. 신약에 많 이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가 함께, 서로, 피차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 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 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 여 그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불수 록 더욱 힘써 모입니다.>(히10:24, 25; 새번역) 그 날이란 종말을 뜻하 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화 국제시 장에 한국전쟁 당시 흥남 철수 장면

이 있습니다. 눈보라가 쏟아지는 어 느 날, 흥남 부두에서 미군 군함들이 군수물자와 군인들을 싣고 대대 적인 철수작전을 개시합니다. 당연 히 피난민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철 수하는 배편에 몸을 싣고자 부두로 모여듭니다. 미군 수송선이 피난민 들을 태워줍니다. 피난민들은 서로 먼저 이 수송선에 올라타기 위해 사 투를 벌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 는 역사의 종말은 어떤 사람이 거 추장스럽다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요? 자신이 생존하기 에 급급한 그런 순간 말입니다. 그런 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역사의 종 말에 가까울수록 오히려 사람을 가 까이하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에 성 경이 제시하는 인연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거추장스러 운 존재가 아닌, 나 자신을 돕기 위 해 존재하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 는 것입니다.

신앙은 공동체적 삶을 전제로 합 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는 삶을 위해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함께 하며 격려와 사랑을 나누는 삶이 없 이, 혼자서 이룰 수 있는 신앙은 존 재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는 삶을 주 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는 일을 통한 엄청난 유익을 경험합니다. 함께 하면 역사 를 이룹니다.

한국교회 인문학 결여 소통과 윤리에 문제 야기

〈성경 속 왕조실록〉 저자 배경락 목사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왕정 시대 중에서 다윗이 죽은 후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약 400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배경락 목사(서울 서북교회)는 1년간 수요예배 설교를 모아 '성도와 목회자가 함께 읽는 이야기 역사신학, 열왕기서 새로읽기'이라 이름붙인 〈성경 속 왕조실록〉을 펴냈다. 책은 열왕기상하 한 장씩을 한 챕터 삼아 솔로몬부터 시드기아까지 이스라엘 왕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이에 대한 오늘의 교훈까지 곁들인다.



성경 속 왕조실록
배경락
샘솟는기쁨 | 304쪽

배 목사는 "인류 최초의 역사서라는 헤로도토스의 〈역사〉가 기원전 5세기경에 쓰였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성경의 역사는 진정한 인류 최초의 역사"라며 "열왕기서 저자는 정확한 사실만을 나열하기보다,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을 살펴볼기를 원했다. 역사를 보고 해석하는 사람들의 관점도 의미 있지만, 직접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관점은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역사를 좋아한다는 배 목사는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다. 역사를 통해 인간을 이해할 수 있고,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린다"며 "성경이 기록한 이스라엘 역사는 단순한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이끄시는 모습을 기록한 역사서다. 열왕기서는 인간을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도 얻게 되고, 세상과 역사를 보는 하나님의 관점도 배우게 된다"고 이야기한다.

다음은 인문학과 신학의 융합과 통섭을 지향하고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매일 블로그(<https://brunch.co.kr/@rothem>)에 글을 쓰는 배경락 목사와의 인터뷰.

-열왕기서를 '왕조실록'으로, 아주 신성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설교로 다루어야겠다 해서 사무엘상하를 마쳤습니다. 원고도 따로 정리해놓지 않았고, 그때 그때 발견한 내용으로 쪽 했는데 반응이 의외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부터는 글로 남겨야겠다고 생각했고, 편집을 거쳐 책이 탄생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결론적으로 '패망사'입니다. 망해서 흩어지는 것으로 끝납니다. 왜 굳이 패망사를 써야 했을까요? 역사는 승리자에 의해 쓰여진다'는 말도 있듯, 보통은 '이렇게 승리했다'는 식으로 역사를 쓰지 않

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정직합니다.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나' 하는 문제에 지속적으로 집착합니다. 끈질기고 고집스럽게 집착하면서, '후대에 걸코 이 전철을 밟아 멸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또 다시 패망했습니다. '인간은 역사로부터 배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과 맥을 같이 합니다.

한국교회도 오늘날 쇠퇴의 길로 가고 있기에, 열왕기상하를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쇠퇴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 반전을 이룰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하거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교회 성장과 부흥만 생각하지, 본질적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를 통해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인가요.

열왕기서를 설교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봤지만, 열왕기서를 왜 썼는지 모르고 설교한 경우가 많아 깜짝 놀랐습니다. 역대기서와 열왕기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열왕기서가 포로 생활 때 쓰였다면, 역대기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다음에 쓰였습니다.

잡혔을 때와 돌아왔을 때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돌아왔을 때는 나라를 다시 세우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역대기서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해서 강대하게 설 것이다' 등 좋은 이야기들을 뽑아 썼습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이렇게 훌륭했으니, 이 위대한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자는 것입니다. 반면 열왕기서는 다윗도 솔로몬도 이리이러한 잘못을 했고, 여타 이리저러한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서 망했다는 내용을 진술합니다. 관점이 정반대이지요. 그런데 목사님

들이 열왕기서를 설교하면서, 역대기서의 비슷한 본문들을 그대로 끌고 옵니다. 역대기서는 솔로몬이 훌륭하다고 하지만 열왕기는 그렇지 않은데도, '짬뽕'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역사가 이상해집니다.

이처럼, 어떤 관점에서 썼느냐가 중요합니다. 열왕기서를 진짜 선지서들에 앞선 '선(先) 선지서'라고도 합니다. 선지자들은 시대를 보면서, 구약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려 주신 나라를 그대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 그림대로 그리고 있느냐를 보고 날카롭게 책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열왕기서는 선지자적 입장에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비판하는 역사서입니다. 그들의 '메인 텍스트'는 신명기로, 이것에 의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 우리 역사를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약 백성들은 다윗과 솔로몬의 영화로운 시대만 생각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크고 놀랍게 역사하셨지,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지켜 주시고 보호하시고 계속 무궁한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로 마찬가지로입니다. '1970-80년대 엄청난 부흥과 발전을 이뤄주셨듯, 이 21세기 마지막 세대에 선교적 사명을 대한민국에 넘겨 주셨는데, 이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직무를 감당하도록 끝까지 대한민국과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착각입니다. 지금 패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과거의 영화만을 보면서 기독교는 시대적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인문학에 조예가 깊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기독교와 인문학의 접목에 관심이 많고, 그런 쪽으로 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책도 성경 이야기이지만 인문학이 녹아 있다고 해야 할까요? 둘을 접목시키면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시대 문화와 사람들의 사고방식, 가치관들을 성경을 통해서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여러 고고학적 자료들이나 역사서 등을 함께 보면 보다 풍성한 상상력이 동원되고 해석의 폭도 넓어집니다.



배경락 목사 ©샘솟는기쁨 제공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고민들, 문제들, 아픔들을 과거에는 어떻게 풀어갔는지, 비슷한 사례를 보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는 시각도 다양해집니다.

-성경과 인문학의 접목, 많이 들어봤지만 감이 잘 안 옵니다.

성경이나 신학에는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신학적 개념들, 기독교의 고정된 개념과 관념 속에서 사용되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랑, 은혜, 성화 등이 있는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언어를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소통할 수 있는 길을 고민하다, 인문학 도서들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사회 여러 문제들을 고민하다 찾은 답이 성경적인 답과 맥락이 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분명 일반은총 속에서 그들이 발견한 지혜일텐데, 특별은총 속 진리와 맥을 같이한다면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가 되면서 다양한 시각이 허용되지만, 우리 기독교는 기껏해야 보수 아니면 진보 양쪽뿐입니다.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포용성이 매우 약한데, 인문학 쪽의 시각들로 성경을 읽으면 좀 더 풍성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 관련 글을 쓰면서도, 인문학에서 빌려온 개념들을 활용합니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시간에 대한 관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구속사적 관점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공간적 관점은 다소 부족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쓴 '인류, 추방의 역사(<https://brunch.co.kr/@rothem/553>)'라는 글에 인문학적 공간의 개념을 차용했습니다. 지금 예멘 난민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느냐 나가느냐 하는 '공간'의 개념 아닙니까.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풍성합니다. 예멘에서 쫓겨나 다시 예멘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아브라함은 고향에서 떠나 다시 돌아오

는 이야기, 요셉은 형들에 의해 팔려갔다가 돌아오는 이야기... 공간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풍성해지는데, 그 동안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인문학이 결여돼 있다 보니 세상과 소통하지 못할 뿐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윤리를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아주 전근대적이고 굉장히 보수적인 윤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윤리는 사회가 발전하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따라가질 않고, 우리 것만 지키려 합니다. 그러니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이슈들에 대해 말해도, 고리타분한 19세기 이야기로 치부됩니다. 논외로 쳐 버리니, 함께 더불어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이는 선교적 마인드가 없는 것입니다. 대신 '꾸란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식의 선교적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아라. 소통하기 싫고, 알고 싶지도 않아. 우리가 옳으니 오려면 와' 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안 옵니다. 기독교가 스스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인문학을 가미한 설교, 성도들 반응은 어떤가요.

너무 좋아합니다. 나이 많은 성도님들도 좋아하십니다. 알고 보면 목사들이 교인들 수준을 너무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같은 소리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열심히 공부해서 수준을 높여 설교하면, 다 알아듣고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가 위치한 동네가 서울 강남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잘 알아듣고, 너무 좋아하십니다. 물론 결론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고민에 대한 것입니다. 목사의 책무는 교인들이 일상에서 부딪치는 문제들, 개인적 문제들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성경적인 답을 찾아줘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세기적 해답이 아니라, 당대의 고민을 함께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이대웅 기자

숨겨진 **20야드**를 찾아드립니다

골프클럽의 성능 **70%**는 **샤프트**에 달려 있습니다

휘텍골프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나만의 **名品** 클럽을 가져 보세요!



세상에
오직 하나
...
당신만을 위한 맞춤클럽



영/업/시/간
화요일~토요일
10:00 am ~ 8:00 pm

미국 스펙의 R(Regular)는 아시안 스펙 S(Stiff)정도로 강하고 무겁습니다. 제조사마다 같은 강도도 스펙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샤프트의 강도를 알려면 Shaft Frequency C.P.M (1분 동안에 샤프트가 진동하는 수)을 측정하여 알 수 있습니다. 무게, 강도, 길이 등 미국 스펙 골프채로 좋은 경기력 향상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으로 자신의 스펙을 찾으세요.

Private Lesson

단기간 집중 골프스윙 완성
스크린 통한 구질 분석, 자신의 스윙을 모니터로 보며 교정



휘텍골프 피팅 스튜디오

213.327.4080 / 213.315.5179
3050 W. 7th St #101 Los Angeles, CA 90005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빠른 송금·환전 빠른 송금·환전
미국 <.....> 한국 ₩

7 Days 24 Hours T.(213)400-6363

CD PRINTING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
 1,000장 \$350
 3,000장 \$950 (3천장 이상시 디자인무료)

\$160 (디자인 포함)
 Retractable Banner \$140
 Stand X-Banner \$65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엮습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월~금:10시~5시 / 토 10시~2시

www.sellacare.com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세트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영양제

서울대학병원 암센터내 고려대 안암병원내 입점

혈액 · 혈관 · 기운 · 면역

-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SELLA CARE
 제품상담문의 213.435.9600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메아 쉬아림에서 볼 수 있는 정통유대인들



메아 쉬아림 거리의 모습

■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81)

특이한 사람들이 사는 곳- 메아 쉬아림

이스라엘의 특징을 한 마디로 들 라면 바로 세계적으로 종교적 나 라요 역사적 나라라는 것이다. 이 역 사와 종교를 장식하는 사람들을 한 마디로 다시 압축하려면 그들 은 바로 정통유대인(일명 하시딤, Hashidim)일 것이다.

구약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 한 유대인의 역사는 모세를 통해 율 법의 완성으로 신정국가 신민들을 만들어냈고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이 스라엘은 결국 이민족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이민족의 지배를 오랜 세 월 동안 받아야 했던 것이다. 바벨 론 포로 이후 성전 제사는 사라지 고 제사장 그룹들은 설 자리를 잃 게 된다. 성전을 대신하는 회당이 곳곳마다 세워지고 이제 이스라엘 은 성전 시대에서 회당 시대로 자 리가 옮겨진다. 제사장 그룹은 이제 랍비가 되어 이스라엘을 성경적으 로 지도하는 자리로 탈바꿈하게 되 는 것이다.

이 랍비 그룹이 오늘날 정통유대 인(Ultra Orthodox Jews)들의 조상 이 된 것이다. 그들은 성전에서 봉 사하던 제사장들처럼 회당에서 봉

사하면서 종교적인 일에만 관여하 기 시작하여 세속유대인들로부터 현금이나 부조를 받고 생활했다. 그 들은 구약성경을 발전시키고 유지 하고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하고 여 러 조상의 전승을 유지하기에 최일 선에서 앞장 섰다. 수많은 세월 유 량하면서 복장(613개의 계명을 상 징하는 옷을 속에 입고 다님)과 음 식정결법(Kosher)을 비롯하여 안 식일 지키기, 절기 지키기를 교육 하고 모범을 보이며 오늘날의 이스 라엘을 만드는 데 영적인 지주노릇 을 하였다. 나라가 독립하면서 꿈에 도 소원이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 와 성전의 한 벽 밖에 남아있지 않 지만 이제 성전을 향하여 날마다 발 걸음을 하기 위하여 성전 산에 가 장 가까운 곳에 마을을 만들어 그 들만의 집단 주거지를 형성한 것이 오늘날의 '메아 쉬아림'이다. '메아' 는 100이라는 뜻이고, '쉬아림'은 문 들이라는 뜻이다. 아마 마을을 들고 나는 문이 백 개쯤 되는 모양이다. 아니면 하나님이 백 개의 문을 통하 여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름을 지었는지도 모르겠다. 또 다른 뜻은 창세기에 이삭이 그 해에 농사

를 지어 100배 의 수확을 거두 었다는 데서 유 래하기도 한다. 이 스 라 엘 570만 인구 중 정통유대인은 인구의 약 6% 정도이고 종 교적 유대인은 34%, 그리고 세속유대인은 60% 정도 되는 데 정통과 6% 중 대다수가 바로 메아 쉬아림을 중 심으로 살고 있다.

이 지역은 이방인이 살 수 없는 지역이며 이방인의 통행도 복잡 때 문에 자유롭지 못할 때가 많다. 자 기들만의 종교문화를 가지고 치외 법권 지역처럼 철저히 자기들의 방 식으로 살아가는 이 지역은 이방인 이 보기에 정말 이상한 마을이 아닐 수 없다. 정통유대인들은 군대에도 가지 않고 세금도 거의 내지 않으 며 아이들의 숫자대로 정부로부터 월보조금을 받고 산다. 그래서 대다 수의 종교인들은 가난하다. 그러나

그들 중에도 사업하는 이들이나 미 국이나 유럽의 종교단체로부터 지 원을 받는 사람들은 잘 사는 것을 볼 수 있다.

정통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히 누크 아츠마이 하레디(Hinuch Atz mai-Haredi)라는 정통 우파 유대학 교에서 공부한다. 이 학교의 초점은 토라(Torah) 연구와 종교성장에 있 다. 남학교 탈무드 토라(1-8학년)는 최소한 일반 학업교육을 제공하고, 남자 고등학교인 예쉬바(Yeshiva)에서는 구약과 탈무드를 배운다. 그 들은 청소년기에 이미 종교인으로 자리 잡고 평생을 종교인 가문에 걸 맞게 살기를 원한다. 여학생들은 베 이스 야코브(Beis Yaakov)라는 정통 학교에서 초-고등학교 학과를 공부 하고 하레디 신학교에 다니게 된다.

모든 공부가 끝나고 성년이 되면 그들 가운데도 세속 유대인으로 돌 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다. 만 18세가 되면 군대도 가고 일반 유대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성년이 되어 자기가 자기의 길을 결정하라는 것 이다. 대다수가 종교인으로 남지만 괴짜들이 있어 세속을 넘나들기도 한다. 종교인들이 담배를 피우고 술

을 마시는 것을 보면 이상한 일이지 만 이곳에서는 별로 이상하지 않다. 종교와 술, 담배는 이들에게는 연관 이 없나 보다.

종교인들은 사시사철 검정 코트 같은 것들을 입고 지내는데 철 따라 바꾸어 입으며 평생을 검정 옷 속으 서 산다. 속옷은 하얀 옷을 입는다. 흑백이 너무 대조되는 모습이다. 정 통유대인 여자들은 항상 치마에 스타킹을 신어야 하고 여름에도 긴 옷 을 입어야 한다. 절대로 외간남자 에게 살을 보여서는 안 되기 때문 이다. 그리고 성년이 되면 머리를 아 예 깎고 가발을 쓰고 다니거나 스카 프로 머리를 돌돌 말아 보이지 않게 한다. 철저히 숨겨져 버리고 회 당도 남녀석이 따로 있다. 이방인들 과는 섞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안 식일을 비롯하여 절기를 지키는 것 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적인 기록감이다. 무더운 안식일 날 작은 모자 위에 털모자를 쓰고 다니는 것 을 보면 나도 모르게 더워진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 루살렘을 사랑하는 일은 바로 이들 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들을 사랑하 는 것이다. (계속)



메아 쉬아림의 주거지



메아 쉬아림의 한 가게. 남성들이 사용하는 모자(좌)와 여성들이 사용하는 모자(우)가 보인다.



미주 크리스천 신학 대학교(원) 신입생, 편입생 모집

본교 지원시 특전

- 1)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 총회(미주내), 개척 장로회 한미 연합 총회 (한국과 미주) 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대학(BA)과정이나 교역학 석사(M.Div) 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기에 80%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대학교
신학과(B.A) | 126학점

신학대학원

-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 96학점
- ◎ M.A 석사과정 | 48학점
- ◎ Th.M 신학 석사과정 | 48학점
-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48학점
- ◎ Th.D 신학 박사과정 | 56학점

입학상담: 213-272-6031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A, CA 90057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는 곳,
우리의 굳어버린 마음을 여는 곳,
꿈을 잃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곳,
그리하여 충만한 삶을 회복하는 곳

나눔과 섬김의 교회

SHARING & SERVING CHURCH

당신을 초대합니다

새신자를 위한 주일예배에 초대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세요

주일 예배 | 오후 2시

육신적 질병과 영적 치유함을 통하여
강건함을 나눠 드립니다

수요 치유 예배 | 오후 7시 30분

담임목사 : 엘리야 김 목사
276 S. Rampart Blvd. L.A, CA 90057
Tel. 213-272-6031

4차 산업혁명 시대, 오히려 교회 역할 중요

제1회 '4차 산업혁명과 기독교 포럼' 개최

한국교회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 대한 기독교의 대응 및 준비를 위한 '제1회 4차 산업혁명과 기독교 포럼'이 25일 IT변혁연대 한국NCD 로고스센터에서 개최됐다.

<4차 산업혁명이 기독교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이번 포럼은 1,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 순서는 김기석 교수(한동대학교)의 사회로 장순흥 총장(한동대학교)과 장현승 목사(과천소망교회 담임)가 강의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첫번째 강의를 맡은 장순흥 총장은 각종 소프트웨어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각종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나 기술과 함께, 이런 것들이 대체할 수 없는 분야의 역량이 동시에 요구된다고 했다.

이어 장 총장은 "세상을 더 유익하게 변화시키고 이웃을 돕고,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어디에 있든 항상 미래를 바라보며 지구촌적 마인드를 가지고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 무엇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인재가 절실하다"고 했다.

특히 '인간성 상실', '자존감 상실',

'AI 관련 범죄 증대', '하나님을 망각하는 죄', '성경의 권위 추락'을 비롯한 기독교를 향한 5대 도전에 대해 언급하며 '복음전도와 이웃사랑을 실천할 것'과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할 것', '기독교 윤리 교육을 강화할 것', '대안학교 및 방과후 학교 강화를 비롯한 교육 혁명을 할 것', '이웃 문제를 해결할 것'을 대처방안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장 총장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복음전도, 죽음의 문제와 영혼 구원, 영생의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공교육에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데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당연해야 한다"며 "오히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단순한 설교를 넘어 교회가 인간성이 상실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강의를 마쳤다.

이어 장현승 목사가 '4차 산업혁명과 목회'를 주제로 강의했다.

먼저 장현승 목사는 "교회와 목회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결국 도태되고 기술에 매몰된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격변하는 시대에 교회, 목회에 있어서도 신기술에 적극 대응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며 "이

제 정보화 시대는 끝나고 영성 시대, 신성화(Theosis)에 주목하여 '그리스도 사랑화'의 성화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참된 '예수 진리의 공동체'가 요청된다"고 했다.

이어 "변화될 수 없는 것, 절대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변화될 수 없을 때까지 변화되는 것, 그리스도를 닮는 것, 성화의 열매를 만들어가는 일이 가장 중요한 목회의 포커스이자 신앙의 본질"이라고 했다.

장 목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명적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지, 어떻게 진리를 수호하고 전파할지를 방법론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성경의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며 "교회의 목회 영역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 신문명을 어떻게 어디까지 잘 이용할지, 경계선은 어디까지 용납·허용할지, 주제적 사용 방법을 어떻게 터득할지, 넘어선 안 되는 것들은 무엇인지,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참된 것은 무엇인지 등의 규범과 한계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기계화되어 신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 관계가 단절된 신앙 없는 신시대에 "오직 진리의 말씀, 진리의 복음 혁명으로, 진리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화의 삶을 통하여 행복한 사람들의 '사랑의 관계



제1회 4차 산업혁명과 기독교 포럼 현장

살림' 목회를 지향한다"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목회의 두 날개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장현승 목사는 설교 붓, 상담붓을 비롯한 목회 현장에서 도전을 언급하며 인공지능은 하나님을 상대하거나 관계할 수 없고, 진리의 성령을 통한 진리의 말씀의 역사를 모방하거나 흉내 낼 수 없고, 성령이 주는 길과 방향 등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주 안에서 지혜롭고 창의적으로 거룩한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자. 참 진리의 교회와 신앙인의 영공의 승리의 역사를 성취하자"고 했다.

이후 진행된 2부 순서에서는 최성인 목사(벧엘교회)의 사회 아래 조대연 명예교수(한동대학교), 김한수 목사(한국 NCD 대표), 최원석 목사(서울중앙교회 담임), 김기석 교수가 강의했다.

조대연 명예교수는 '4차 산업혁

명이 무엇인가?'를 주제로 4차 산업혁명 및 이전의 산업혁명들과 이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의사소통, 성경으로 본 기독교적 교찰을 전했고, 김한수 목사는 기술의 발전이 새로운 스타일의 신앙생활을 돕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기술을 교회를 위해 사용할 것인지, 미래의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들의 답을 '교회를 위한 기술'이라는 관점에서 나눴다.

'4차 산업혁명과 신학적 이슈'를 주제로 강의를 맡은 최원석 목사는 신론과 인간론, 죄 등에 대한 신학적 이슈를 정리하며 "시간과 공간, 실제와 가상, 사물과 생명, 인간과 기계, 자연과 기능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대에 교회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의미와 가치, 죄와 구원에 관해 기독교적 관점에서 현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삶의 길을 찾아가도록 제시할 책무가 있다"고 했다. 김신의 기자

어린이는 안 된다?... 세례의 연령에 대해

예장 통합총회(최기학 총회장) 국 내선교부가 '어린이(아동) 세례'의 타당성에 대한 공청회를 9일 서울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열었다.

'어린이(아동) 세례 및 세례·입교 연령에 관한 연구위원회' 보고서를 발표한 김세광 교수(서울장신대)에 따르면, 통합 측은 포괄해 현재 한국의 주요 장로교회들은 만 2세까지의 유아세례만을 허용하고 있다. 때문에 만 2세 이후의 아동들은 세례를 받기 위한 성인 세례의 연령 자격인 만 15세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김 교수는 "이러한 성례전 관습이 형성된 이유에 대한 역사적 논쟁이나 신학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13년이란 기간 동안 성례전과 관련한 목회적 지침이나 교육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만 2세에서 15세 사이의 아동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던 이유는 '인지'에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목회적 관점'에서 아동세례의 필요성을 역설한 조용선 목사(온누리교회)는 "아동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타당하나 아

니나의 문제 이면에는 인지발달론적 측면을 지지하나 아니나의 입장이나 논쟁이 깔려 있다"며 "아동들이 세례에 대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 교수는 "웨스터호프는 신앙유형의 특징을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 체형적 신앙, 귀속적 신앙, 탐구적 신앙, 그리고 고백적 신앙"이라며 "이 중 아동기에 해당하는 것은 귀속적 신앙이다. 이 때 신앙은 정서적 신앙이다. 머리카락으로 믿는 신앙이라고 했다. 그는 "이 단계에 있는 아동은 신앙공동체 속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한다. 소속된 공동체의 친밀성과 돌봄의 교제가 살아있는 예배, 그러한 성례전적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기"라며 "(따라서 아동에 대한) 세례 교육과 의식은 신앙공동체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다.

이어 유아·아동세례를 둘러싼 신학적 논쟁점을 고찰한 박경수 교수(장신대)는 "세례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점"이라며 "이 문

제에 대한 개혁교회의 분명한 입장은 그 주도권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는 확신"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재세례가 나의 믿음에 따른 고백과 결단이 세례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할 때 결국 세례의 주도권은 인간의 결단의 결과가 되고 만다"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에서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아·아동세례는 인간이 신앙으로 응답할 수 있기 이전에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백성이라는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유아·아동세례는 부모와 가족 나아가 공동체의 신앙 근거 위에서 베푸는 것"이라며 "따라서 성경의 증거와 교회의 실재를 고려할 때, 양육할 수 있는 회중의 신앙공동체가 존재하는 한 유아와 아동은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특히 박 교수는 "유아·아동세례는 율법이 아니라 자유가 되어야 한다. 만일 아동세례가 의무와 율법이 된다면, 진중세례의 부정적 측면들이 아동세례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유아·아동세

례를 원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이며 값진 선물인지를 충분히 가르쳐 세례에 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반면, 유아·아동세례보다는 장성해 자신의 분명한 뜻과 말로 드리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세례받기를 원한다면 그 선택 또한 귀하게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기독교교육적 입장'에서 발표한 양금희 교수(장신대)는 "유아(3-6세)들이 인지적으로 미성숙하다고 해서 그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을 수 없거나 종교적 경험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유아들은 엄마에 대한 인지적 정보, 즉 이름이나 직업, 학벌 등에 대해 잘 모르지만, 엄마와 그 누구보다 강렬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양 교수는 말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며 "이들이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제대로 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양 교수는

'산타 할아버지'를 예로 들기도 했다. 고학년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산타 할아버지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지 않지만, 유아들은 보이지 않는 산타 할아버지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전논리적(pre-operational) 사고가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한 상상을 할 수 있게 하며, 그 분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고 그는 말했다.

앞서 김세광 교수는 보고서의 결론에서 "아동세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성례예식"이라며 "하나님의 계약의 백성을 향한 절대적 은총의 선물인 유아세례를 보존해온 개혁교회 전통에서 아동세례를 금하고 있었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동세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들이 그들의 나이와 믿음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한다. 아동세례의 시행은 회중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성례전적 삶을 더욱 적극적으로 살 수 있게 하고, 목회자들에게는 성도의 구원의 여정을 성례전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목회적 환경을 제공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영 기자

2018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위(M.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재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116261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수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master@gmail.com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M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CE),
선교학(MA.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6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참 신앙의 유산 전수하는 참 목회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11)- 알칸사 제자들교회 전담수 목사

복음주의자들은 종종 보수주의 자라고도 부른다. 신앙의 전통과 영적 유산을 지키는 입장에 서게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성경에 기초한 바른 신앙은 시대와 문화의 도전에 휩쓸리지 않고 신앙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보수신앙이다. 21세기 문명사회에서 구약의 전통과 초대교회의 영성을 추구하는 보수신앙은 수많은 도전을 이겨 내고 있다.

기자가 만난 전담수 목사는 이런 점에서 보수신앙인이다. 그가 섬기는 알칸사 제자들교회는 믿음의 전통을 지키는 특별한 교회다. 전담수 목사는 구약의 예배신앙, 초대교회의 뜨거움 그리고 교단의 신앙전통인 옥중성도의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목회를 지향한다. 전담수 목사는 녹록치 않은 이민목회 현장에서 영적 전통을 지키는데 혼신의 힘을 다한다.

교회 마루 냄새를 맡으며 자랐다

전담수 목사는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 부모님은 대구에 계시고 할머니와 함께 시골에서 자랐다. 해질녘이 되어 흙장난을 하며 같이 놀던 친구들이 엄마들의 부름을 받고 하나씩 집으로 돌아가면 전담수 어린이는 홀로 남았다. 홀로 남겨진 서글픔이 어린 가슴을 채우면 그는 예배당으로 갔다. 예배당에 가면 전도사님이 늘 반겨주었다.

그런데 예배당에는 반겨주신 전도사님보다 더 편안하고 반기웠던 예배당 마룻바닥이 있었다. 예배당 마룻바닥이 이상하리만치 포근했다. 나아가 예배당 마룻바닥 향기가 너무 좋았다. 때로는 교회에서 잠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할머니가 찾아오실 때까지 교회당 마룻바닥에 누워 있곤 했다. 전담수 목사의 어린 시절 예배당 추억은 어머니 가슴 같은 포근함이다.

교회에 살고 싶어요

전담수 목사는 중학교 시절 대구에서 광민교회를 다녔다. 광민교회에서 보낸 학생회 시절 많은 은혜를 받았다. 특히 중2 때 SFC 수련회에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았고 신앙생활이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 시절 학생회를 지도해 주셨던 과상봉 전도사님과 소중히 만남은 많은 성장과 성숙

을 경험하는 축복이었다. 광민교회 학생회 시절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다. 매 주일 저녁예배까지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교회에 머무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심지어 종종 '교회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부르심에 반응하며

전담수 목사가 고3 6월 한창 임시 공부에 열중하고 있을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교통사고였다.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다. 그 충격과 아픔을 이기기 위해 전담수 학생은 기도원을 찾았다. 매주 금요일 버스를 타고, 또 걸어서 주말 기도원을 찾았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서러움과 아픔을 주님께 토해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의 교회들을 찾아서 기도했다.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 부르심을 다시 확인한다. 그리고 신학교 진학을 구체적으로 준비한다. 신학교 진학을 고민하며 상담을 했다. 대체적으로 일반대학을 마친 후에 신학대학원 진학을 권면했다. 마음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 후에 당시 고신대학원 교수였던 전호진 박사님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전 박사님으로부터 대학 졸업 후에 신학교에 와도 좋다는 회신을 받기도 했다.

다시 확인하는 주님의 부르심

신학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 철학과에 진학을 했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고민이 생겼다. 진학하려 했던 고신대학원이 분쟁에 휩싸여 시끄러웠다. 그래서 비슷한 신학적 흐름을 가진 합동신학원에 진학을 하고 학사장교로 입대하였다. 입관 후 배속된 포병대대에 교회가 있었다.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은혜가 넘쳤다. 대대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께서 집사로 임명해 영내 교회 집사로 봉사했고 한편 신철원 읍내 민간 교회 청년예배에 참석해서 은혜를 나누었다.

특별한 도전과 갈등없이 순조로웠던 군 생활에 큰 위기가 왔다. 제법 큰 부상을 당했다. 야전병원과 후송병원을 거쳐서 부산 통합병원에 입원했다. 하나님 은혜로 건강은 기적적으로 완쾌되었다. 하나님의 기적이었다. 그 기적을 기억하기 위해 전 목사는 아직도 병적 기록카드를 보관하고 있다.

이 기간 영적 회복은 더 큰 축복이었다. 후송의 시간과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졌다. 영적 회복의 끝은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진학이었다. 선배와 은사들의 도움도 많았다. 병상에서 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면접시험까지 마쳤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대학교 그리고 군복무 시절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한 셈이다.

유학과 개척 그리고 이민 목회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더 깊은 공부의 필요성을 느껴 유학을 결심한다. 유학을 위해 찾아 온 곳이 알칸사 리틀락이다. 종착지가 아닌 경유지였다. 리틀락에서 공부를 마치고 밥존스 대학 박사과정 입학 허락도 받고, 부교역자로 섬길 교회도 결정되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희망에 부풀어 있던 중 요청에 의해서 소그룹 성경공부를 시작했다. 성경공부 그룹이 성장하면서 교회 개척을 소망하게 된다. 물론 갈 길이 있는 전담수 목사에게는 남의 일이었다. 전 목사의 의중을 파악한 성경공부 멤버들은 항공료를 제공할 테니 주말 통학으로 개척만이라도 해 달라는 제안을 했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된 교회 개척 사역은 주말 사역으로 1년간 지속되었다. 교회를 시작하면서 예배에 관한 기본적 목표를 갖게 되었다. 새벽기도를 쉬지 않는 것, 금요심야기도회,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를 꼭 드리기로 한 것이다. 잠시 개척만 돕기로 했던 목회는 우여곡절 끝에 전담게 되었다.

전담수 목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목회를 한다. 그래서 전담수 목사가 섬기는 알칸사 제자들교회에는 다양한 예배 프로그램이 있다. 예컨대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드리는 패밀리 예배, 매월 첫날 드리는 월삭예배(모든 자녀들이 강단에서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고 담임목사의 안수기도를 받는다), 십일조 새벽기도(매년 연초 아이들과 함께 40일간 새벽기도를 드리는 신년 새벽기도) 등이다.

온 교회가 동참하는 운동들도 벌였다. 예컨대 "이사운동"이다. 성도들이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자는 운동이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였다. 집을



전담수 목사

사기도 하고, 교회 가까운 아파트를 구하고, 교회 쪽으로 창문이 난 아파트를 구하였다. 이 운동의 결과로 2005년, 2006년 두 해동안 18가정이 집을 구입하였다.

비전과 기도의 제목

인터뷰를 마무리 하며 기자는 전담수 목사의 기도 제목과 비전을 물었다. 전담수 목사는 폭포수가 쏟아지듯 기도를 토해냈다. 늘 품고 기도하고 있다는 증거다. 전담수 목사 기도 제목을 간략하게 정리한다. 첫째로 '예배에 목숨을 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다. 그는 그야말로 예배에 목숨을 건다. 전목사는 예배자다. 그의 목회와 삶에 예배자의 열정이 진하게 느껴진다.

둘째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다. 교회는 모름지기 영혼구원에 힘써야 한다. 그러나 현대 교회가 전도의 동력을 상실하여 영혼구원의 열정과 능력을 상실했다. 그래서 현실 유지나 수평이동을 통한 성장을 꾀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영혼구원을 목회와 교회의 비전으로 삼고 기도하는 것은 귀하고 아

름답다.

셋째 '양육된 제자를 세우게 하소서!'다. 제자훈련하는 교회들의 이름으로 제자라는 용어의 의미가 희석되기도 했다. 하지만 참 성도는 주님을 따르는 군중이 아닌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고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거는 참 제자를 세우는 것이 전담수 목사의 기도 제목이다. 넷째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소서!'다. 전담수 목사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을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아울러 전목사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을 사명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유학생들을 돌보고 2세들을 돌보는 일에 전심을 다한다.

전담수 목사는 행복한 목사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누리는 은혜를 힘을 다해 전한다. 목사의 열정과 마음을 이해해주는 성도들과 젊은이들이 있어서 더욱 행복하다. 한국어도 잘 모르는 청소년들이 매 주일 전 목사의 설교를 들으며 설교를 요약해서 제출하는 노트를 보면서 저절로 미소가 번진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목회자의 행복이다.

강태광 편집위원

서철원 박사 교의신학 전 7권 완간!

전통적 개혁신학 입장에서 체계화한 교의신학의 결정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조직신학 책의 완성판

서철원 교수는 서울대학교 철학과 (B.A), 동 대학원 (M.A), 총신대 신학대학원, 미국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대학원 (Th.M),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Dr. Theol)를 졸업하였다.

자유대학교 신학박사 학위논문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중보직」(The Creation-Mediatorship of Jesus Christ)은 20세기 100대 신학저술 모음인 Theologicum에 수록되었다. 한국교회를 위해 헌신하고자 귀국하여 개혁신학연구원 교수, 총신대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대학원장, 신학대학원장, 부총장 역임), 한영신학대학교 석좌교수로 재직하다가 은퇴하였다.

저서로 「교리사, 「복음과 율법의 관계」(한글 및 일어번역판), 「성령신학, 「하나님의 구속경륜, 「신앙과 학문, 「복음적 설교, 「하나님의 나라, 「문화명령, 「종교다원주의, 「창조신앙, 「기독교문화관을 출판하였다. 「언약사상에 대한 새로운 사상」(A New Thought on the Covenant Idea, contributed to the International Reformed Theological Journal of the Netherlands) 외 다수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였다.



서철원 교수

I. 신학서론_ 믿음으로 신학함 304면 / 22,000원

II. 하나님론_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의 사역 392면 / 26,000원

III. 인간론_ 인간, 하나님의 형상 416면 / 29,000원

IV. 그리스도론_ 하나님의 성육신과 그의 구원사역 296면 / 22,000원

V. 구원론_ 의롭다 하심, 거룩하게 됨 264면 / 20,000원

VI. 교회론_ 교회, 하나님의 집 176면 / 15,000원

VII. 종말론_ 창조경륜의 궁극적 성취 280면 / 20,000원

1세트(전7권) 154,000원

“근본적인 치유, 진리 안에서의 자유, 성령으로 한계를 초월하는 삶을 누리는 영성혁명의 현장”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

Holy Spirit Conference 영혼의 새 생령 컨퍼런스

2018. 7. 25 (수) - 2018. 7. 30 (월)

오후 7:30

하루 1번 (7.29 주일에는 오전 11시)

2018. 7. 31 (화) - 2018. 8. 6 (월)

오전 11:00 | 오후 7:30

하루 2번 (8.5 주일도 동일)

로스엔젤레스 백송교회

213 674 7966 | 213 245 6616

BAEKSONG CHURCH LOS ANGELES

3251 W 6th St. Suite B1,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Berendo 사이 Holms Building Center 지하 1층,
Berendo길 혹은 New Hampshire길 주차장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You Tube 유튜브에서

"이순희 목사"를

검색해보세요!

평일에도 집회가 있습니다.

(월, 수, 금 7:30 PM)

변화

시기, 마음, 원망, 교만 등 내적 치유로
예수를 닮는 성품으로 변화,
열매 맺는 삶으로의 변화와 성숙

치유

알코올, 컴퓨터 각종 중독에서 자유,
기억상실증, 우울증, 공황장애 및
정신질환, 각종 암 등 영혼육의 질병 치유

기적

찬양, 설교 등의 훈련
방언, 신유 및 갖가지 은사 체험,
축구사역, 영적전쟁의 체험적 이해

백송 이순희 목사

백송교회 담임목사
영혼의 샘 세계선교센터 회장
백송영성수련원 원장
서울신학대학교/신학대학원 M.Div
전세계 찬양치유 부흥사
각종 세미나 강사



이기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쫓았던 육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되어
가정의 회복, 인생의 회복을 누리
조주영 집사



한 번의 예배로 16년간의
컴퓨터 게임 중독을 치료받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변화됨
박재하 집사



공부는 소홀히하고 친구들을
괴롭혔던 문재학생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변화됨
김범준 청년



불행한 가정으로 인해
죽고만 싶었던 삶이
천국 가정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됨
송미호 권사



7개월 동안 병원을 280번 가도
치료받지 못한 영혼육의 질병을
완전히 치료받고, 해결할 수
없었던 보종의 문제 해결받음
박혜지 권사



공황장애, 강박증, 우울증 등
18가지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삶을
치료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변화됨
송유미 청년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상처로 말미암은 각종 질병을
치료하시며 주의 종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만남
서지영 전도사

방황하는 영혼들의 쉼터 영혼의 샘 지부 안내

해외지부 * 캐나다 토론토 백송교회 | 647 637 4013 * 미국 로스엔젤레스 백송교회 | 213 674 7966 213 245 6616
11 Glen Cameron Rd. Thornhill, ON L3T 4N3 3251 W. 6th St. Suite B1, Los Angeles, CA 90020

한국 * 인천본부 | 032) 469 0191, 032) 323 1291 * 보령 백송 수양관 | 041) 931 0195~6 * 대구지부 | 053) 644 0175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야산로 231번길 20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봉덕삼현길 191 대구광역시 월배로 32안길 61 B1

baeksong.kr